

성도의 벗 10

1989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성도의 빛

1989년 10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 휴 더블류 피녹, 진 알 룩,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퍼 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80권, 제35권, 제10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9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10KO

Printed in Korea 10/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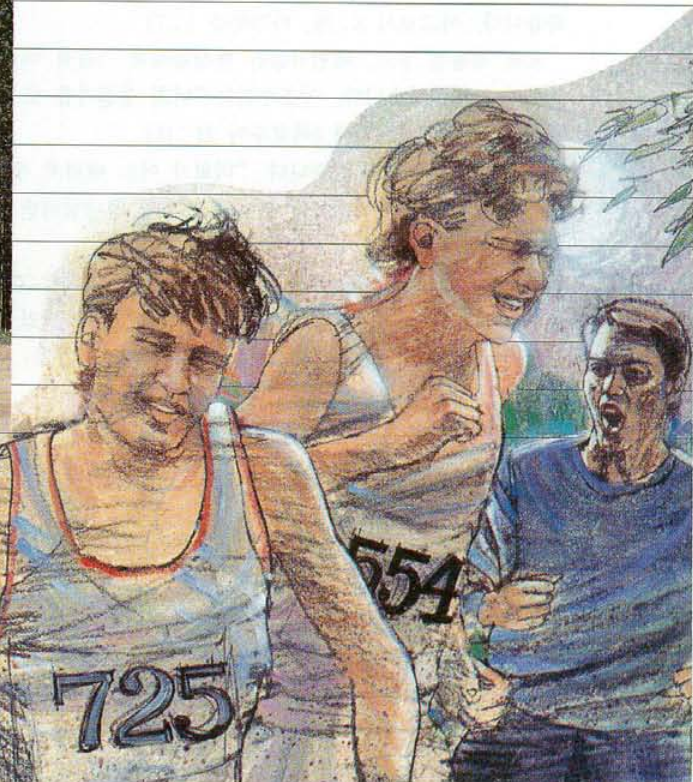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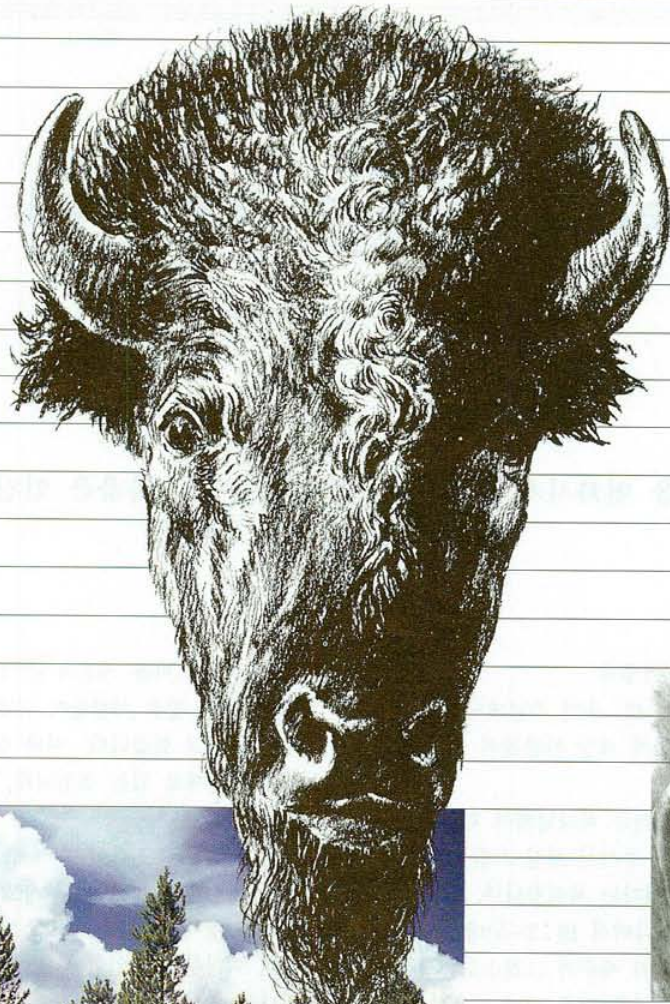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관장단 메시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2	하나님께로 태어남
	방문교육 메시지 :
7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
9	잃어버린 진리의 회복 : 3부.....길버트 더블류 샤프스
12	8년 걸린 물문경 읽기.....테니스 시 브림홀
14	교회에 오는 일을 중단했던 조아킴.....키이트 닐슨
16	편부모.....프란시스 와덴
19	듣소의 저편.....다이안 로프그렌 맨검
	물문 수기
24	피터를 위한 가족.....릿 왓슨
25	나이트 가족 : 1부.....윌리엄 지 하틀리
31	법정에 선 요셉
33	기억의 은사.....라렌 건트
34	죽음과 죽는 과정에 대하여.....윌리엄 엠 티민스
38	한 가지 이상의 선수.....제이슨 존 부쉬넬
42	“너는 저보다 크뇨?”.....제니퍼 클락
44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즐거움.....리차드 엠 롬니
	청소년란
48	높이 차는 가족.....레어드 로버츠
	어린이란
51	의인의 노래.....엘레인 프롱크 와이틀리
54	소리를 높여 노래 부르자
55	황금룰에 따라 생활함.....맷 그레이엄
56	새로운 동물.....다니엘 본
57	심심풀이 : 물문.....베키 모르간과 셸리 한나
58	교회 및 지역 소식



하나님께서로 태어남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 환경을 바꾸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마태복음 22:42)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수십 세기에 걸쳐 세상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는 하나님께서 현대 경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인 몰몬경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몰몬경을 읽고 모로나이의 제안(모로나이서 10:3~5)대로 거룩하게 시험해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를 따르는 일을 택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루시퍼를 따릅니다.(야고보서 2:19; 마가복음 5:7)

오랜 세월을 두고,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간청했습니다.(여호수아 24:15)

엘리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왕상 18:21)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길ियो, 진리요, 생명—곧 가장 옳은 길ियो, 구원을 얻는 진리요, 풍성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4:6 참조)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수께 이를 구하”라고 모로나이는 말하고 있습니다.(이더서 12:41)

변화를 택함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택한다는 것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진심으로 결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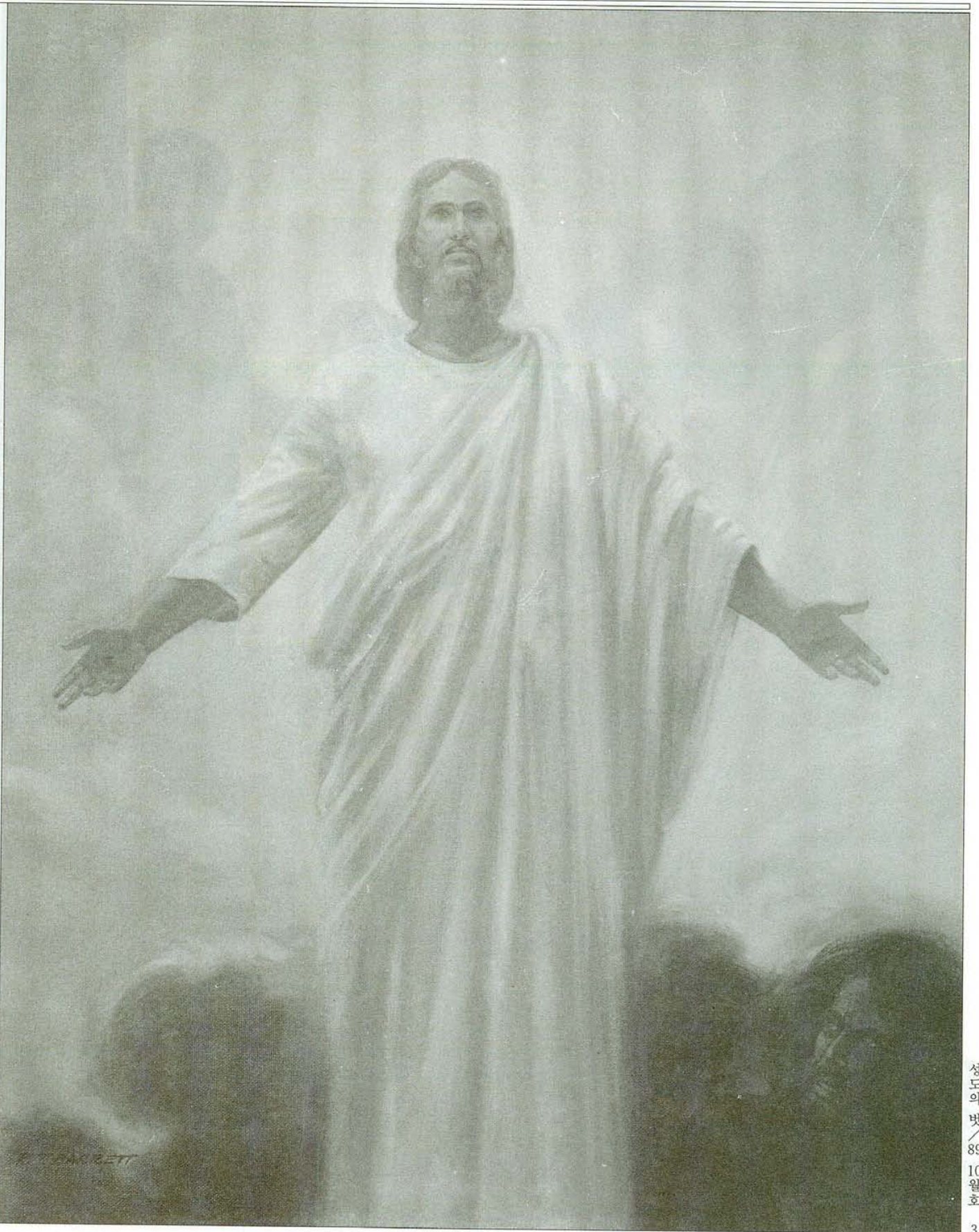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사람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느낌은 설명할 수는 없어도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2년 4월, 7페이지)

인간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위대한 선교 사업을 통해서 매일 발생합니다. 그것은 가장 널리 퍼진 그리스도의 현대 기적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없다면—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질문에 대한 간단하나 종합적인 대답이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남, 곧 변형이 있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58년 4월, 14페이지)

맥케이 대관장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의 “내적인 인간”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면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태도를 통하여 근본적이며 항구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대회 보고, 1960년 4월, 26페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길ियो,
진리요, 생명 곧 가장 옳은
길ियो, 구원을 얻는 진리요,
풍성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며
기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생각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새롭게
증거합니다.

승영을 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침례 의식을 받고 안수례를 받는 것 외에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사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만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나니,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육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인간은 새 것이 되나니, 거듭 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모세서 27 : 25~26)

우리 종교의 종석인 물몬경에는 “마음의 변화”와 “거듭남”의 과정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왕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 속에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않고 “계속해서 선행을” 했습니다. (모사이사서 5:2, 7 참조)

엘마의 중대한 질문

엘마서 4장은 니파이인의 역사에서 “교회의 발전을 크게 저지당”(엘마서 4:10)한 시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엘마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행정부의 대판사의 자리를 물려 주고 그에게 맡겨진 책임인 “대신권의 반차에...온전히 그의 모두를 바쳤”(엘마서 4:20)습니다.

백성들에게 “순수한 간증”을 전한(엘마서 4:19) 그는 엘마서 5장에서 40가지가 넘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 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녀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엘마서 5:14)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껴 본 일이 있었으며,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엘마서 5:26)

오늘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해 나가면 교회가 놀랄 정도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몬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로 거듭난 선교사들의 수효가 점점 증가되며,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물몬경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날 때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습니까? 선교사로서 것처럼 큰 능력을 갖고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로 거듭나도록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 거듭난” 엘마였습니다. (엘마서 36 : 23~26)

주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빠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빈민가를 없애서서 그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빠져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품행을 형성시키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맥케이 대판장은 “인간의 본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될 수 있다. 마음 속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일순간이라도 느껴 본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다면, 인간의 본성, 곧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어 왔다. 세상이 그 자신의 피로 물들여지지 않으려면, 인간의 본성은 앞으로 거대한 규모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900여 년 전에는 열두 사람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단 열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비버리 니콜즈, 풍요한 삶을 사는 지름길, 르웰린 알 맥케이,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1년, 127페이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통솔됨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솔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은 “주여 주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무엇이이니까”하고 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그 자취를

따”(베드로전서 2:21)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행할”(요한일서 2:6)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통솔을 받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뜻은 주님의 뜻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요한복음 5:30 참조)

그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요한복음 8:29 참조)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죽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벽에 걸린 그림이나, 책장에 꽂힌 책이나, 잔잔히 흐르는 음악이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섭니다.(모사이사서 18:9 참조)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품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를 바라봅니다.(교성 6:36 참조)

그들은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그에게 돌립니다.(엘마서 37:36 참조)

거의 매주마다 그들은 성찬을 취하며 기쁘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새롭게 증거합니다.(모로나이서 4:3 참조)

물론경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니파이이서 32:3),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니파이이서 25:26), “그리스도 안에서 산 바 되며”(니파이이서 25:25),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니파이이서 33:6 참조)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버리고 영생을 찾습니다.(누가복음 17:33 참조)

영원한 도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그에게 일어난 한 특별한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잠이 들었는데 “무한히 장엄한 어떤 시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도시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있는 것과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도시는 주님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도시였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구세주께서 내 생각을 알아차리기도 하셨듯이, 그때 그들 위에 나타난 반 원을 가리키며 대답해 주셨는 데, 그 위에는 금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겨 낸 자들이니,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내가 잠을 깨어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기록에 나타난 소중한 경험, 클레이 미들미스 편저,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59~60페이지)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께로 거듭나면, 새 날이 밝아오고 시온은 구축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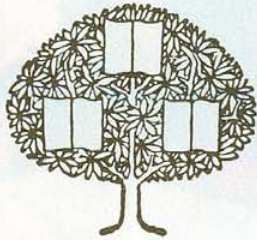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그를 따르기를 택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며, 그의 통솔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불타 올라 거듭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복음이 생명을 가질 때 인간의 마음에 오는 변화는 “현대에 가장 널리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벤슨 대관장님은 말씀하십니다.
2.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남”이란 단지 그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버리고 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즉 바른 길과 구원의 진리와 풍성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4.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을 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 구세주를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에 생활 속으로 찾아온 변화에 대한 예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



목적 : 자매들에게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작성 및 보관하는 일의 중요성을 상기시킴.

엘리자벳은 아홉살 때 삼촌과 함께 미합중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의 부모와 다른 여섯 명의 자녀도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벳은 성장하여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가 그녀의 집에 찾아 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 엘리자벳은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폐결핵과 녹내장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생애의 15년 간은 맹인으로 지냈습니다.

그가 죽자 엘리자벳은 혼자서 농사를 짓고 아홉 명의 자녀를 길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살림을 산파의 일로 보태갔습니다.

가족은 세 번이나 집을 잃었습니다. 한번은 홍수로, 나머지는 화재와 폭풍우로 인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벳은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으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자벳은 머느리인 매리의 도움으로 개인 역사를 편찬했으나 일을 마치기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매리는 그 일을 완성하고 그 기록을 모든 가족이 볼 수 있게 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벳의 역사는 그녀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우리의 생활 일부로 남아 있어요.”하고 매리의 딸인 캐롤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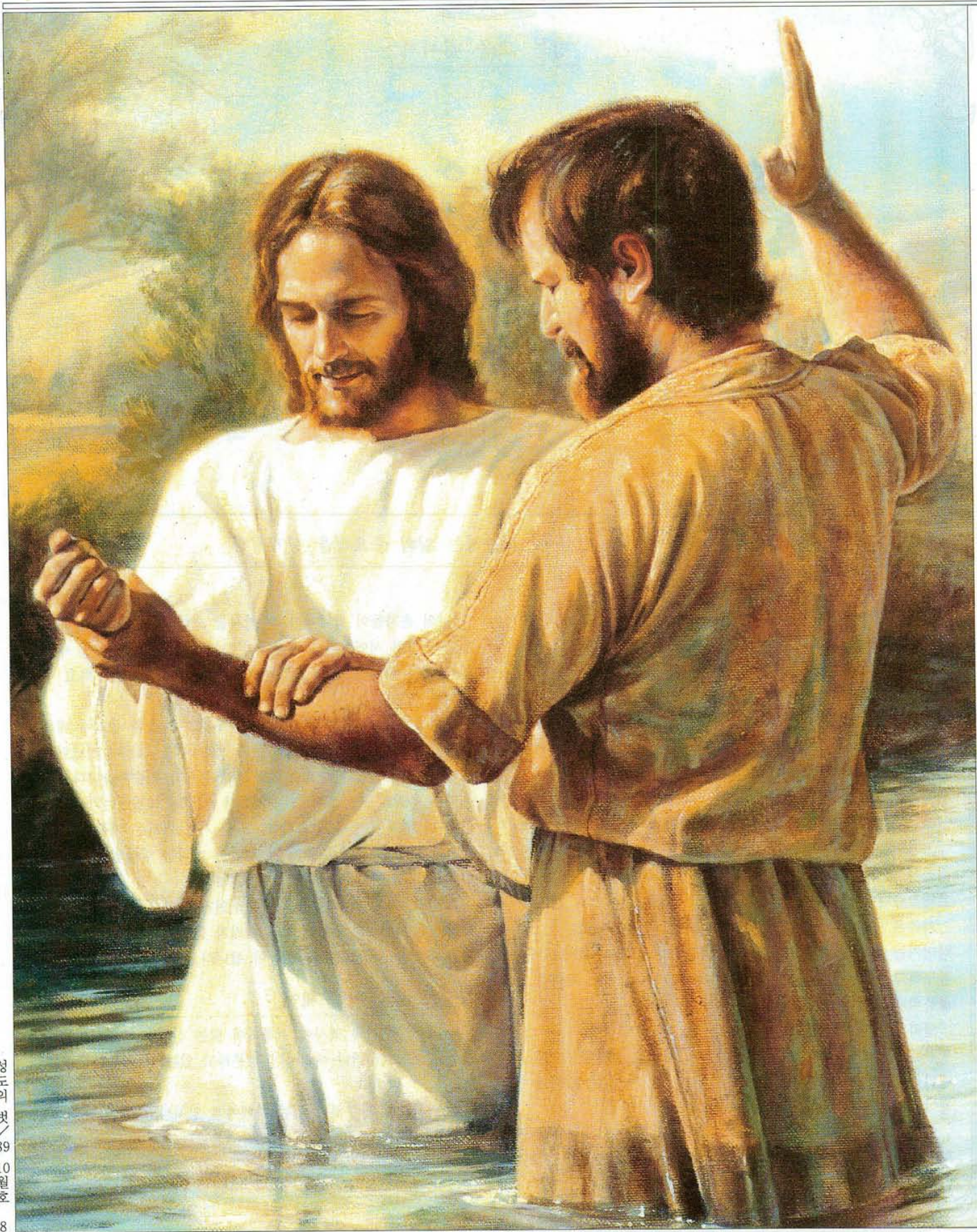
“나의 손자들이 책장에서 그 역사를 꺼내어 볼 때 내가 왜 그 일을 끝마쳐 시어머니의 후손들이 그녀가 남긴 유산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하고 매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조상에 대해 앎으로 인해 우리가 그들과 우리에게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녔던 꿈과 소망이 시련과 문제들은 우리의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관해 읽을 때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또한 가족 역사는 가족이 영원히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때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 및 가족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삶을 평가하며 후손들을 위한 유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개인 및 가족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을 증진시키는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이 방문하고 있는 자매에게 말하게 한다.
2. 여러분이 방문하고 있는 자매에게 일지나 개인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추가 자료를 위해서는 가정의 밤 자료집 95~97, 189~190페이지를 참조한다.)



잃어버린 진리의 회복

3부

길버트 더블류 샤프스

물몬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지 못했을 여러 가지 사항

삼 부로 된 이 연재물에서 말일성도 신학연구원 교사인
길버트 더블류 샤프스는 물몬경이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더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연재물의 첫번째 기사(1989년 8월호)에서 샤프스 형제는
물몬경이 주님의 속죄 희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달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 진정한 자유의 근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의 전세의 모습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이 마지막
기사에서 그는 물몬경이 어떻게 구세주의 성약을 분명케
해주는가를 설명하며 계속되는 계시에 관해 언급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증한다.

17.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도 포함됨. 예수님의 주권은 전 세계로 확장된다.
신약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외치셨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요한복음 10:16)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세주께서는 미대륙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바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니파이삼서 15:21)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 있지도...아니한 또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방문할 것이라고 하셨다.(니파이삼서
16:1)

18. 물몬경은 침례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
침례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죄도 없었던 구세주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은 다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마태복음 3:15) 주님께서는 기록하신
데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니파이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바를 보여 주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고
말했다.(니파이서 31:5~9 참조) 물몬경은 또한 침례가
구세주의 지상 성역 훨씬 이전에도 실시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모사이아서 18:14)

19. 물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중 몇 가지가
분명하게 밝혀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 가운데 몇 군데가 분명치
않다. 물몬경은 이들 중 몇 가지를 분명하게 해 준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니파이삼서 12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되어
있으며 12장 6절에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라고 되어 있다.

2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신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신권은 인간도 소유할 수 있다. 사복음서에서는 구세주의
권세와 권능의 개념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소유했던 것과 같은
신권의 개념과 분명하게 연관지어지지 않다.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그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히브리서 4:14,
5:10 참조)

물몬경에서 엘마는 대제사 신권에 관해 많은 내용을 설명해
준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칠 제사를 성임하셨으며 이
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라 성임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엘마서 13:2) 대제사
신권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었으며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위해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다.(엘마서 13:1~12)

침례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죄도 없었던 구세주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다. 마태는 다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3:15)

참조) 물몬경은 또한 멜기세벡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다고 한 히브리서 7장 3절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다고 말해 준다. (엘마서 13:18)

21.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속적인 계시의 근원이심. 대부분의 기독교파들은 성경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신으로부터 계시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물몬은 계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니파이삼서 29:6 참조) 모로나이도 마찬가지로 믿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다하여 계시도...없다 하는 자들에게...이르노라.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 (물몬서 9:7~8)

22. 물몬경은 구세주께서 우리 시대에 그의 교회를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함. 성경은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물몬경은 말일에 있을 주님의 사업에 관해 더 자세하게 말해 준다. 리하이네 이렇게 말했다. “말일에 메시아가 권능의 영으로 저들에게 임하시라 저들을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며”. (니파이이서 3:5) 몇몇 예언자는 물몬경 그 자체가 회복의 일부라고 기록하고 있다. (니파이이서 27장; 이더서 5장 참조)

23.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가 그의 이름으로 불리워야 한다고 하심. 성경은 그리스도 교회의 이름을 말해 주지 않는다. 오늘날, 어떤 기독교에서도 교회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소수의 그룹에서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뿐이다. 구세주께서 미대륙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도록 선택한 12제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알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가 되겠느냐?” (니파이삼서 27:8)

24. 메시아께서는 유대인을 잊지 않으셨음. 나는 유대인 교수인 해리스 레노위츠가 말일성도들은 대개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모하메드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친절했습니다. 1400년대 말에 스페인의 페르디난드왕과 이사벨라여왕도 그랬습니다. 약 2세기 전 마틴 루터도 그랬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종하지 않자 이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우리에게 대적했습니다. 물몬들에게도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가 교회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랴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몬경에 있는 유대인에 관한 약속에 대해 토론했다. 니파이삼서 29장에서 물몬은 물몬경이 세상에 나타날 때의 이스라엘 족속, 특히 유대인의 상태에 관해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속의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성약을 성취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1절) 그는 우리가 “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때를 늦추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2절)다고 하셨다. 물몬은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실 것임이라.” (3절)고 가르쳤다. 물몬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의 지파의 어느 잔류민에게도 다시는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희롱하지 말지니, 보라 주님께서 저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맹세하신 대로 저들에게 행하여 주실 것임이라.” (8절)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서 그의 사업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개심할 지에 대해 너무



성경을 통해

8월 10일

11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성 45:48~53 참조)

25. 물몬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증거임**.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물몬경은 성경의 증거에 대해 권유적인 간증을 더하고 있다. 물몬경에 등장하는 잘 알려진 모든 예언자가 다 구세주에 관해 예언하고 그에 대해 가르쳤다. 오늘날 성경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경 시대에 살았던 세 명의 예언자의 간증도 물몬경에 기록되어 있다. (니파이일서 19:10) 물몬경은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도 기록하고 있다. 구세주께서도 자신에 관해 물몬경 예언자들이 간증한 내용을 설명하신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10~11)

물몬경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얼마나 알 수 있었는가? 우리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에베소서 4:14; 디모데후서 3:7 참조) 겐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한복음 17: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게 해 주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갖게 해 준 물몬경의 예언자와 요셉 스미스에게 큰 감사의 빛을 지고 있다.

8년 걸린 몰몬경 읽기

데니스 시 브럼홀

1978년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아내 린다와 나는 귀환 선교사 모임에 참석했다. 귀환 선교사 한 명이 그의 가족은 경전을 읽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말했다.

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정규적으로 경전을 읽었지만 몇 구절을 읽기 위해 이른 아침 전가족을 깨우는 일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와 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형성하는 그러한 습관이 자녀들에게 든든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평소보다 약간 일찍 우리는 가족이 함께 모여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는 훌륭한 이야기와 복음 원리에 대한 명백한 설명 때문에 몰몬경을 읽기로 했다. 또 다른 이유는 표준 경전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큰 활자로 된 경전이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안젤라는 여섯살이었고 재미는 세살이었으며 달라스는 갓난아기였다. 처음에 재미와 달라스는 잘 참석하지 못했지만 안젤라는 매일 아침 열심히 참석했다.

경전을 함께 읽던 첫째 날 몇 가지 사실들이 확실해졌다. 첫째, 너무 오랫동안 읽지 않고,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읽으면 이 계획은 곧 모두에게 싫증을 일으킬 것이다. 셋째, 어린이들이 몰몬경에서 배운 메시지에서 기쁨을 얻듯이 엄마와 아빠에게 읽어줄 때 기쁨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매일 한 페이지 중 한 단씩 읽기로 했다. 우리는 차례로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내어 읽기로 했다. 안젤라는 아직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나 내가 몇 마디씩 읽어 주면 그것을 따라서 읽는 것으로 했다.

자녀들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에는 토론을 하거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강조를 했다. 대개의 경우 읽기 전에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흥미를 갖고 읽게 된다. 위대한 예언자가 죽게 되면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 좋아하는 이야기나 좋아하는 예언자의 기록을 읽게 되면 그것에 대해 말한다.

처음부터 우리는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곧 급하게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욕을 버리게 되었다. 5년이 걸린다면?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자녀들이,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피로하거나 흥미를 잃게 되면 많이 읽지 않는다. 다음날이면 언제든지 중단했던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읽기를 마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달,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아이들이 글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들이 몰몬경에 있는 예언자, 이야기 또는 가르침과 친숙해 진 것이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서서히 경전 내용을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어나 이름을 발음하는데 차츰 도움을 받지 않게 되었다. 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레이첸인 등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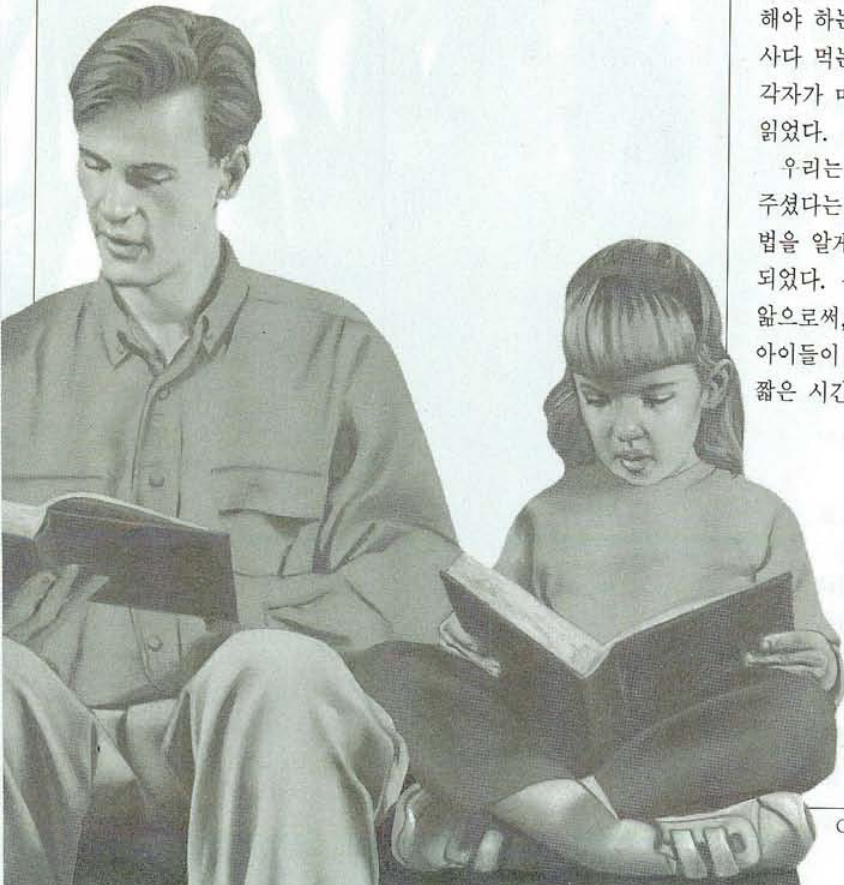


단어를 빠뜨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활자가 큰 책은 곧 안젤라에게서 재미에게로, 다시 재미에게서 달라스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 태어난 질에게로 전해졌다. 나이는 자녀가 자신이 소유할 물몬경을 받게 되면 더욱 만족해 했다.

그동안 성취한 일도 많았다. 아이가 아무런 도움이 없이 한 구절을 다 읽을 때면 가족은 칭찬하곤 했다. 니파이삼서를 읽을 때 우리는 특별한 영을 느꼈다. 자녀들은 그 구절의 중요성을 느꼈다. 어떤 구절은 여러번씩 읽고 토론을 했다. 어린이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관한 것을 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물몬경이 바로 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느꼈다.

읽기가 주춤할 때도 있었다. 여름에는 경전 읽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이들은 방학 중이면 나처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가 되면 읽지 못하는 날이 꽤 많았다. 그러나 일단 개학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1983년,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생겼다. 우리는 교외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나는 출퇴근하는 데 한시간 씩이나 걸렸다. 이것은 내가 아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출근해야 함을 뜻했다.

우리는 경전 읽기를 저녁에 잠자기 전으로 옮겨 문제를 해결했다. 그 시간에 읽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바쁜 계획, 숙제, 텔레비전, 심지어는 교회 활동이 우리의 시간을 방해했다. 그러나 여러 주 뒤에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으며 그렇게 계속되었다.

물몬경을 반쯤 읽었을 때 아이들이 대학, 결혼, 또는 선교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나기 전에 물몬경을 다 읽으려면 "걸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한 페이지씩 읽어 왔다. 우리는 밤마다 두 페이지씩 읽기 시작했다. 1986년 10월에 우리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성탄절까지 끝내기로 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던 날은 특별한 밤이었다. 우리는 다섯 살이 된 질이 마지막 구절을 읽도록 계획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기도에서 8년간 물몬경을 읽어온 긴 여정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렸다.

우리는 축하를 하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우 물몬경을 끝낸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매일 해야 하는 경전 읽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먹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각자가 마음 속으로 느끼는 만족감이었다. 우리는 물몬경을 읽었다.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읽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독서가가 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물몬경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은 예언자에게 순종했음을 앞으로써, 또한 물몬경에 있는 권고로부터 힘을 얻고 매일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시킬 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던 짧은 시간을 통해 강화된 사랑으로써 굳게 계속되었다. *

교회에 오는 일을 중단했던 조아킴

키이트 닐슨

새로운 개종자인 조아킴은 교회와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그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여러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노상에서 전도를 하곤 했다. 그는 무언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교회에도 일찍 왔다. 조아킴 핀토 디아스와 그의 가족은 1970년에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 있는 메이에르 지부의 주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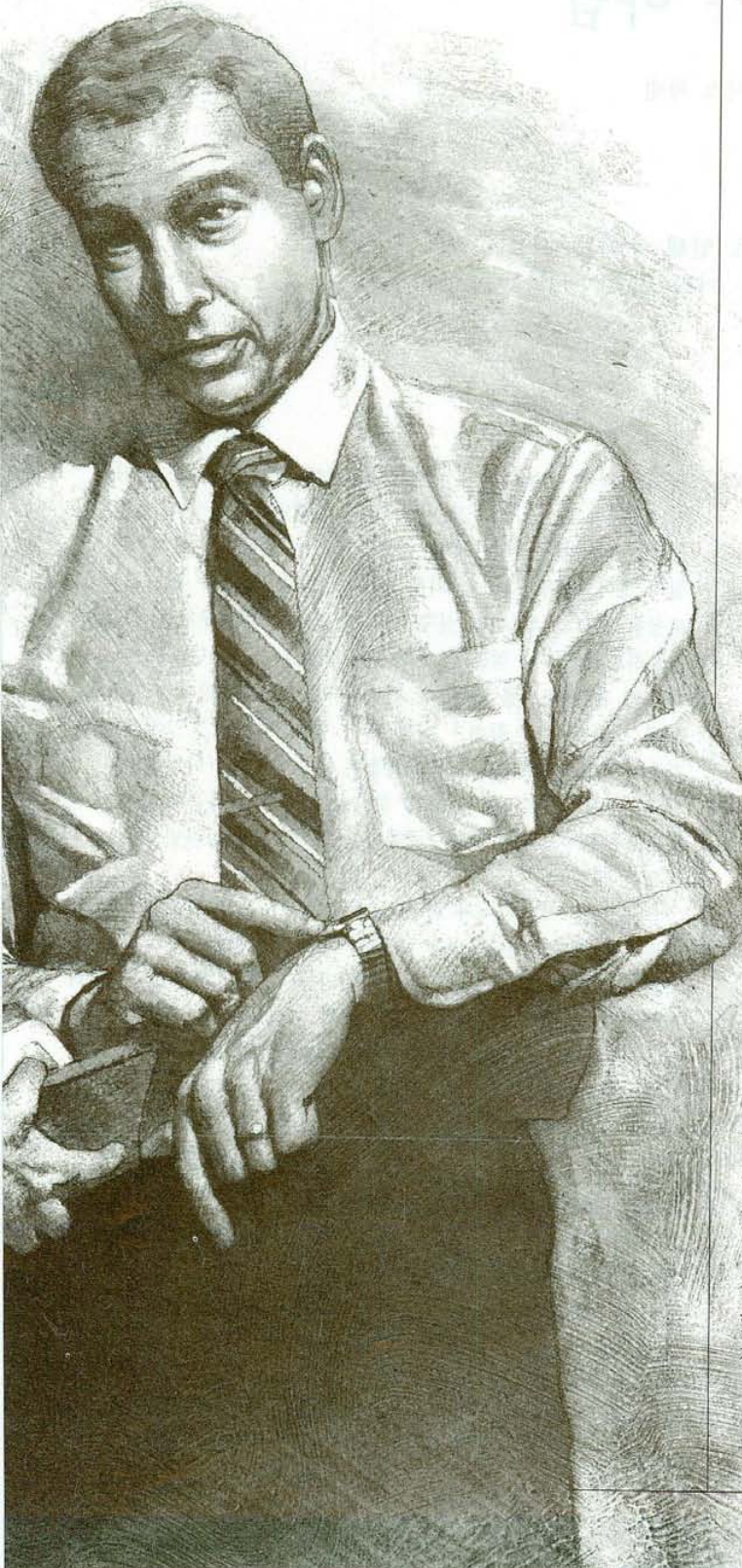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은 조아킴은 대단한 열성으로 이 부름을 수행했다. 교재에서 공과를 40분 동안 가르치라고 하면 그는 정확하게 40분을 가르쳤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는 교회에 오는 일을 중단했다. 이따금씩 새로운 회원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찮은 문제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것이다. 주일학교 회장은 그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과 시간을 줄였었다. 조아킴이 반대했을 때 회장은 그의 반대를 묵살해 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주일학교 회장은 새로운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이 있자 마음 속 깊이 상처를 입은 조아킴은 완전히 교회에 나오는 일을 중단했으며 회원이나 선교사들의 어떠한 설득도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나는 그 선교사들 중 한 명이었다. 성과도 없는 설득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동반자와 나는 한번 더 조아킴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소와 같은 논쟁이 일어났으며 우리의 설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일학교 시간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하찮은 듯한
사건으로 말이암아 조아킴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했다. “하지만 조아킴 형제님, 형제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지부장은 그에게
찾아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본 뒤 그의 아내에게
구세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그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으며 그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는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는 그의 집을 떠났다.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그 질문이 조아킴에게 충격을
주었듯이 나에게도 그랬다. 나는 내 자신이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성신이 나를 통해 말씀한
것이였다. 영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 입에서 질문이
흘러나왔을 따름이였다.

주님의 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을 때 나타나신
것이다. 그 일의 의미심장함이 내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차게
했을 때 나는 하늘로 날아 오르는 듯 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듯 했다. *

키이트 닐슨은 부동산 회사의 사장이며 브리감 영 대학교 테니스 팀의
부감독이다.

편부모 혼자가 아님

프란시스 와텐

구세주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결코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 난 수년 동안, 이혼으로까지 진전된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래로 나는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으며 내 생애의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다

왜 내가 가장 두려워 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나는 어떻게 무너진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나는 어린 소년이 보고서로 된 책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내용의 만화를 본 기억이 난다. “이 책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주님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 경험은 내가 알고자 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정서적인 성숙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온 마음을 주님께 털어 놓았다. 나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게 한 그 사건으로 마음이 몹시 짓눌려 있었다. 그 어두운 시간 동안 나는 자신과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어떤 것을 파괴하고 몹시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참기가 힘들었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의 짐을 끝없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 자신과 전 남편과 아이들의 삶에서 잘못되어 버린 것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주님께서서 내가 했던 것처럼 무지와 이기심과 미숙한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으시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인해 계속해서 고난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으셨다.”

“너도 그러하니라.” 마음에는 그와 같은 조용한 응답이 왔다.

나는 갑자기 구세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어떤 분명한 의미에서 나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깨달음이 홍수처럼 밀려 왔다. 일단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보상을 하고난 뒤 누가 실수를 저질렀느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염려는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졌다. 나는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는 듯 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너와 내가 함께 말이다.” 그것은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나의 아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내게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다.

그 사실을 깨달자마자 나는 실패했다는 느낌과 부적당하다는 생각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전에 완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완전한 존재와 동반 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는 결코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자녀들과 나의 복지에 관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큰 위로였다.

그후 여러 주 동안 나는 이 개념에 대한 나의 이해력을 넓히려고 애썼다. 나는 경전이 자신의 짐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권고로 가득차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불드시오”(시편 55:22)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 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교성 6:3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또는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순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신을 더욱 완전해질 수 있게 해 주는 삶을 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우리의 가정은 점차 해의 왕국의 처소가 될 수 있었다.

편부모로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무심코 물문경을 뚫으며 그때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되었다.

“그 고난이 극심하여짐에 엘마와 그 무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열심으로 간구하기 시작하였더라…”

“고난 중에 있는 저들에게 주의 음성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고개를 쳐들고 흡족히 위로를 받으시어라. 너희가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속박에서 구하리로다.

“또한 너희 어깨에 메어진 고난의 짐을 가볍게 하여…”

“이에 엘마와 그의 형제들의 부담은 가벼워졌고 주가 저들의 힘을 북돋우사 쉽게 짐을 지게 하시며 즐거움으로 참을성 있게 주의 뜻에 복종하게 하였고,

“저들의 신앙과 인내가 지극함에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평안하고 기뻐하라 내가 내일 너희를 속박에서 구하리로다 하시고”,(모사이야서 24:10, 13~16)

나는 그 말씀이 고대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짐을 지도록 요구되는 한, 인내로서 주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며 내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또한 그것이 나 자신을 최대한 시험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시련으로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필요 사항과 절망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돌이키게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반면에 적어도 우리가 의로움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감당하시리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어찌 됐든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고통이나 실패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더 높은 차원의 겸손과 신앙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동반 관계를 이루는 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당면했을 때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편모에게는 동반자로부터의 격려와 감사가 없다. 많은 편모들이 나처럼 자신들은 교회에서 추방당했거나 격리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어린 소녀 때에 꿈꾸던 소망과는 다른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독신이든 기혼자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염려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로움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참으로 우리의 완전한 동업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반 관계를 받아 들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기대하지 못했던 화평과 결실로서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슬픔과 죄와 쓸데 없는 갈망으로부터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과 용기와 사랑 가운데서 거듭나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다.*

프란시스 와덴은 유타주 오렘에 있는 샤론 남 스테이크 오렘 19와드의 회원이다.

들소의 저편

말일의 개척자 조셉 비 엘더의 이야기

다이안 로프그렌 맨검

1856년, 잊을 수 없는 어느 가을날, 500여 명쯤 되는

말일성도 개척자들은 시온을 향해 부지런히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들소때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 성도들은 들소때를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식량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수한 소떼는 개척자들의 소유물을 훔쳐버리고 가축을 짓밟으며 그들의 대열을 휩쓸며 지나갔다.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도들은 겨우 두 마리의 들소를 죽일 수 있을 뿐이었다.

손수레 부대를 돕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채로 사건을 목격한 스물 한 살 된 조셉 벤슨 엘더는 개척자와 들소 간의 싸움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조셉은 손수레 부대와 잠간 동안 여행을 했을 뿐이다. 그가 시온으로 집합하는 성도들을 돕고 그 자신이 그곳에 가담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해 초, 빨기세탁 신권에 성임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며 침례를 받은 지 1년이 되던 날이었다.

솔트레이크시터를 향해 서쪽으로

1856년 여름에 조셉과 몇몇 다른 젊은 말일성도들은 아메리카의 평원을 횡단하여 시온으로 이주하는 여러 부대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 가축, 노새, 말, 소 등을 몰고가는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조셉 엘더가 아이오와 시티에서 윈터 쿼터스로 이미 여행을 시작한 손수레 부대에 가담하도록 지명받은 것은 8월 중순 경이었다. 아이오와시티에는 유럽 선교부에서 온 이주민들이 대열에서 낙오되어 있었다. 제임스 지 윌리가 이끄는 부대는 손수레가 준비될 때까지

아이오와시티에서 한달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 이주민 기구의 몇몇 지도자들은 그 무렵 또 다른 부대가 유타로 향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으나 그들의 열의가 대단했기 때문에 행군하기로 했다.

8월 17일 토요일에 조셉 엘더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1,600킬로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솔트레이크시터로 향한 행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수레가 여러 무리로 나뉘어 행군을 해 가고 사람들의 신앙이 그처럼 강한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광경이었다. 손수레로 대륙을 횡단한 적은 이제껏 없었지만, 그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조셉은 추가 보급품 수레를 몰고가며 여행을 하는 동안 식량으로 쓰일 가축을 돌보도록 지명을 받았다. 그가 대략 계산한 전 부대원은 ‘450명 가량으로 120대의 손수레에 여섯대의 보급품 수레’가 있었다. 그들은 열명 또는 백명씩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날의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배고픔으로 허약해진
 남녀, 어린이들...우리는 아홉
 명을 커다란 무덤에 함께
 매장했다.

그들이 네브라스카주의 플로렌스 지역 또는 윈터 퀴터스
 진영을 떠났을 때 그들 앞에는 세 무리의 다른 손수레 부대가
 있었으며 마틴 손수레 부대는 그들보다 며칠 뒤에 그들을 따라
 나섰다. 이 1856년의 부대들은 손수레와 텐트만으로 평원을
 횡단을 시도한 최초의 부대였다. 윌리 부대가 윈터 퀴터스를
 떠났을 때 그들 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떠난 세 부대는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아직 4주 거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남녀, 어린이에 노인과 병자까지 포함된 커다란 무리가
 시온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계절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시도하고 싶었다.

어려움이 시작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척자들은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윌리와 마틴 부대의 손수레들은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이 잦았다. 수리를 위해 여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식량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지며 늦은 계절에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셉 엘더는 손수레 부대를 위해 들소를 사냥하는 임무를 충실히 행했지만 동물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가축과 몇 마리의 소가 들소떼의

습격으로 죽고 말았다. 밀가루도 배급제로 해야만 했으며 다른 식량도 거의 남지 않았다. 어떤 성도들은 굶주림으로 허약해지기 시작했다. 그 부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보급품 마차를 보내겠다고 한 약속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

9월 26일에 앞서 떠난 세 손수레 부대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으나 윌리 부대는 아직도 산악 지대 저편에 있었다. 조셉 엘더는 그들이 10월 1일에 와이오밍주 라라미 요새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다. 라라미 요새에서부터는 매일 산을 향해 높이 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물도 없이 25킬로미터를 여행하였으며, 같은날 그들은 마지막 밀가루를 먹어 치웠다.



신선한 음식과 의복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으며... 드디어 1856년
11월 9일에 크레이트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그들은 언제 식량을 가져다 줄 구조대가 올지도 모르는 채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손수레 부대가 여행을 순조롭게 할 수 없었던 주요 원인은 예상치 않았던 초겨울의 심한 눈보라때문이었다. 개척자들은 눈보라를 피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텐트는 그러한 악천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다. “사태는 무척 나빴다. 사람들은 적은 양의 식량 분배로 몹시 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자 진영에서는 함성이 울렸다. 마차가 보인 것이다.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오는 두 명의 남자가 말과 마차가 보급품을 싣고 오는 길이라는 말을 전하려고 오고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소식이었다”고 조셉은 기록했으나 소식만으로는 굶주린 수백 명이 성도의 배를 채우거나 이 위기의 시간에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척자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었다. 그들을 재촉해서 눈보라 속으로 행군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뜻했다. 그러나 구조 마차가 오리라는 소식을 전해준 마차가 우리를 지나쳐 마틴 부대로 향해 갔을 뿐 오리라는 구조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조셉은 그의 일기에 윌리 대장이 조셉을 데리고 구조 마차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고 기록했다. 그 부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영을 만들려고 했다. 모든 개척자들은 손수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8킬로그램의 옷과 침구만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많은 성도들은 문자 그대로 동사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구조대를 찾아 나섰다.”고 조셉은 기록했다. 그들은 늙고 지친 나귀를 타고 하루 종일 그들의 얼굴을 향해 불어오는 세찬 바람과 눈 속에 18킬로미터를 여행했다. 다음날 그들은 폭풍우 때문에 구조대가 지체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발견했다. “오랫 동안 우리를 찾아온 그들은 우리를 보자 무척 기뻐했다.”

“그날은 끔찍한 날이었다.”

윌리 대장과 조셉 엘더는 구조대를 이끌고 도움을 기다리는 진영으로 돌아오기 까지 하루 반동안 어려운 여행을 해야 했다. 그들은 추위가 너무도 엄청난 값을 받아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날은 끔찍한 날이었다. 그날의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허약해진 남녀, 어린이들이 소리없이 울거나 소리내어 울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나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몸서리쳐졌는가 다음날 우리는 아홉 명을 커다란 무덤에 함께 매장했다.”

윌리 손수레 부대가 겪은 운명은 물론 개척자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시련 중 가장 큰 슬픈 일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 공급된 신선한 음식과 의복으로 사람들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으며 날씨도 좋아졌다. “우리는 꾸준히 행군을 계속했으며 드디어 1856년 11월 9일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그러나 450명 가운데서 67명이

도중에 죽었다.

그들이 도착한지 2주일 후에 조셉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많은 눈 때문에 산에 갇혀 있는 마틴 손수레 부대에 속한 600여명을 도우러 갈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들었다.

조셉은 그날 다른 자원자들과 함께 떠났다.

산에는 눈이 거의 3미터나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마차가 지나갈 수 없었다. 자원자들은 보급품을 등에 짊어지고 손수레 부대까지 가야 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셉은 부대원들이 솔트레이크시로 가는 마지막 시도를 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진영을 정비하는 일을 도왔다.

드디어 모든 손수레 개척자들이 안전하게 시온에 모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

조셉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브리감 영의 마차를 모는 직업을 얻었다. 그는 곧 마차 부대와 함께 유타로 온 개척자 중 영국에서 개종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인 마가렛 조이너를 만났다. 그들은 곧 결혼하여 일곱 명의 부모가 되었으나 두 명만이 성인이 되었다. 조셉은 일리노이주에서 잠시 선교 사업을 했으며, 1878년 마흔 세 살의 나이로 유럽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조셉 벤슨 엘더는 오랜 생애 동안 교회에서 봉사했으며 봉사하는 가운데 큰 만족을 얻었다.*



아들 피터가 7주째 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마음 속에 떠오르자 그에게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아들인가를 말해 주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가정에 화평과 조화가 있는 사랑스러운 가족에게 맡겨야지. 그들은 그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도와줄 거야. 말썽을 부려도 조용히 타이르겠지. 그들은 또한 언행이 정직하겠지. 나는 피터가 그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나는 그를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며 복음 안에서 그를 키울 가정을 원하게 될거야.”

그러자 곧 다른 생각이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이 떠올랐다.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영을 너에게 맡길 때 내가 느꼈던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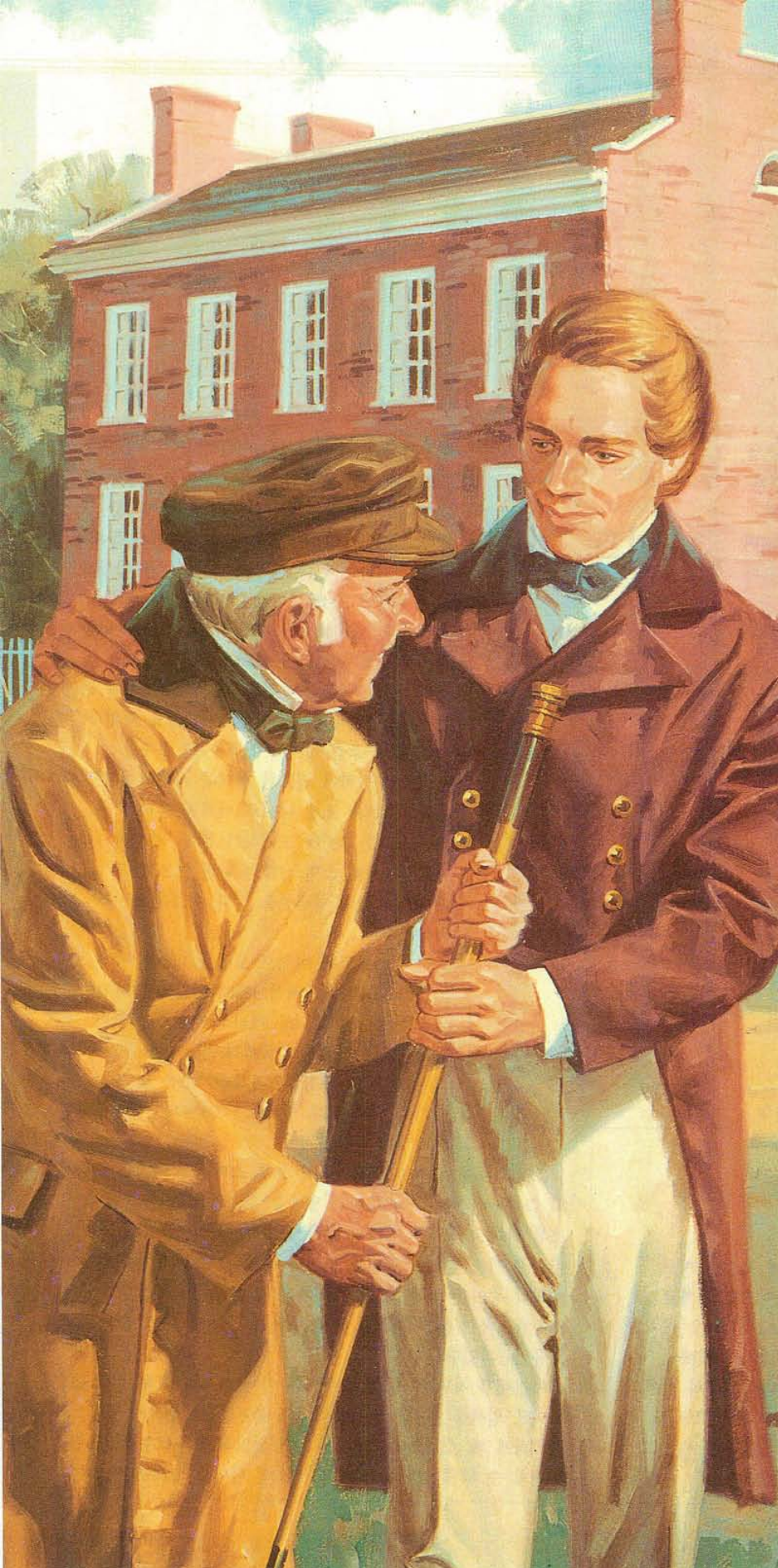
나는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지상에서 키우도록 우리에게 맡기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또한 나의 자녀가 나에게 소중하듯이 모든 자녀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주님께서 내가 지니기를 원하시는 부모로서의 성품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겸손해짐을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때로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가 원하시는 어머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큰 기쁨을 느꼈다.*

피터를 위한 가족

린 왓슨





나이트 가족

1부

윌리엄 지 하틀리

가까이에서 예언자를 알았으며
그에 대한 강한
간증을 전했던 조셉 나이트 가족의
생활에서 신앙과 충성심의 모범을
볼 수 있다.

요셉 스미스는 천천히 나부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 연로한 조셉 나이트를 보았다. 그는 뉴욕에서부터 알게 된 이 오랜 친구를 재빨리 쫓아가 이 연로한 친구에게 그의 지팡이를 건네주며 나이트 형제에게 그 지팡이를 계속 보관하고 그의 후손 중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전해 주라고 말했다.¹ 그들의 우정은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 판들을 받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20년 이상 지속되었다.

스미스 가족 다음으로 조셉과 폴리 나이트 가족이 어쩌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두번째 가족이 될 것이다. 나이트 가족은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또는 데이비드 휘트머가 요셉 스미스를 알기 전에 그를 알았으며 그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나이트 가족은 세 목격자와 여덟 목격자 또는 스미스 가족 중 몇몇 사람들보다도 더 충실하게 요셉 스미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종류의 증인, 즉 예언자로서의 요셉 스미스의 사업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증인이었다.

요셉 스미스가 나이트 가족과 친분을 맺기 시작한 것은 그가 스물 한 살

때였다. 1826년 늦은 무렵에 요셉 스미스는 조셉 나이트 일세와 뉴욕주 콜스빌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다. 요셉 스미스는 농장일을 했으며 나이트가의 제재소 일을 도왔던 것 같다. 그는 6년 전에 첫번째 시현을 보았으며 3년 간 모로나이를 만나고 있는 중이었다.

나이트가를 위해 일을 하는 동안 그는 조셉 나이트 이세와 방을 함께 썼다. 그는 요셉 스미스가 1826년에 “우리에게 그가 시현을 본 일과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고대의 금판이 묻혀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는 것과 그가 천사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는 그 금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은밀한 가운데 들었다”고 기록했다.²

또다른 아들인 뉴웰 나이트는 요셉 스미스가 그들을 가끔 방문했으며 그들은 “주님의 천사에 의해 그에게 보여진 물문경의 판에 관한 그의 말씀의 진실성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했다.³

요셉 스미스는 엠마 해일에게 구애를 하고 있었으며 나이트 집안의 장정이 그 일을 도와 주었다. “나는 그에게 돈을 주었으며 그가 애인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말과 썰매를 내주었다.”⁴ 요셉과 엠마는 그후 곧 1827년 1월 18일에 결혼했으며 약 71킬로미터 쯤 떨어져 있는 팔마이라의 스미스가로 이사를 했다.

판을 받음

요셉 스미스가 판을 받을 시간이 되었을 때 조셉 나이트 일세는 스미스가까지 여행을 했으며 예언자는 그의 마차로 금판을 가지러 갔다. 그날 밤 요셉 스미스는 그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이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열 배나 더 좋았습니다.” 조셉 나이트 일세의 말에 따르면 예언자는 판에 관해 설명을 했지만 그는 “판보다도 우림과 둠뎀에 대해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요셉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것으로 무엇이든 알 수 있기

나이트 가족

나이트 일세는 요셉 스미스에게 자주 식량과 종이를 주어 그가 물문경 번역을 마치도록 도왔다.

때문입니다. 훌륭한 물건입니다.”

1828년 초에 요셉과 엠마는 나이트가에서 약 18킬로미터 떨어진 엠마의 친정으로 이사를 했다. 요셉 스미스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판을 번역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 부부는 조셉 나이트 일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이트가가 재정적으로 크게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셉 나이트 일세는 요셉 스미스에게 약간의 물건을 주었다. “창고에 있는 몇 가지 물건과 구두 한 켤레와 3불을 주었다.” 며칠 후에 조셉 나이트 일세는 그 부부를 방문하여 번역에 필요한 종이를 사라고 약간의 돈을 주었다. 조셉 나이트 이세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부친과 나는 가끔 그(요셉 스미스)를 만나러 갔으며 그 때마다 약간의 생필품을 갖다 주었다”고 회상했다.

나이트 부인은 아직도 요셉 스미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1828년 3월에 그녀의 남편은 썰매로 그녀를 데리고 스미스를 찾아 갔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가 하고 있는 번역일과 그가 받은 몇 가지 계시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때부터 나의 아내는 믿기 시작했다.”

1828년 초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요셉 스미스의 서기가 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은 조셉 나이트 일세를 찾아가 식량을 청했다. 조셉 나이트 일세는 약간의 돈과 물고기, 곡식, 감자 등의 식량과 기록을 위한 종이를 마련해 주었다. 요셉과 올리버는 음식과 종이를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들은 일을 계속했으며 식량은 번역이 끝날 때까지 충분히 건널 수 있을만큼이었다.”

여러해가 지난 후 요셉 스미스는 이 물건을 마련해 준 조셉 나이트 일세를 이렇게 치하했다. 그 물건들은 “우리가 일을 계속하게 해 주었으며 그것들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잠시 일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⁵ 조셉 나이트 일세는 세상이



몰몬경을 일찍 받도록 도와 주었다. 만일 예언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면 번역은 여러 해가 걸렸을 것이다.

1829년 5월에 조셉 나이트 일세는 당시 펼쳐지기 시작한 신성한 사업에 관해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 예언자는 주님께 여쭙어 보았으며 그는 조셉 나이트 일세가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기를 힘쓰라”(교성 12:6)고 하는 계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모든 힘을 다하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에서 나이트 가족에게 준 여러 가지의 계시 가운데 하나이다.⁶

1829년 6월 초에 요셉과 올리버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일을 끝냈으며 세 목격자와 여덟 목격자가 판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는 나이트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멀리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조직되던 날 60명 가운데 3분의 1이 콜스빌에서 온 나이트의 친척이었다.

나이트가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

그후에 요셉 스미스는 나이트가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모임을 갖기 위해 콜스빌로 갔다. 그곳에서 요셉은 뉴웰 나이트에게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부탁했다. 뉴웰이 기도를 하려 하자 악령이 그를 공격하여 그를 바닥에서 들어올려 “가장 두려운

방법으로 흔들어 댔다.” 이웃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그들은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마를 내어 쫓는 것을 지켜 보았다. 뉴웰은 자신이 악마로부터 해방된 것을 느꼈으며 기쁘게 침례를 받았다. (악령을 쫓아낸 이 사건은 회복된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기적이었다.)” 그는 교회에 가입한 60명 이상의 나이트가의 최초의 회원이었다.

1830년 6월 9일 휘트머의 집에서 가졌던 최초의 교회 대회에서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오순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뉴웰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순교자 스테반이 보았던 것과 매우 흡사한 시현을 보았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으며 때가 되면 그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 기쁘게 살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지역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이트가의 친척들이 1830년 3월 28일에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이트 일세 부부, 아들 조셉과 뉴웰의 부인 샬리, 딸 에스더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 스트링햄 그리고 딸 폴리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폴리라고 지었다.) 나이트 일세의 부인의 친정집 성은 펙이었다. 펙의 친척 가운데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녀의 오빠인 헤제카이아와 그의 부인 말타, 그리고 그녀의 동생인 에스더와 그녀의 남편 아론 켈버였다.⁸

노한 이웃들은 개종자들이 확인받는



일을 방해했으며, 보안관은 요셉 스미스를 체포했다. 분개한 조셉 나이트 일세는 그의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 법을 잘 아는 이웃 농부인 제임스 데이빗슨과 존 라이드를 고용했다. 그들의 변호로 인해 요셉 스미스는 다음날 밤에 방면되었다.

조셉 나이트 일세는 이웃 사람들의 감정이 증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의 마차는 전복되고 그 위에 나뭇단이 쌓여 있었으며 어떤 마차는 물속에 처박혀졌고 문 앞에는 통나무들이 가로 놓여 있었다. 체인들은 강물 속에 던져졌으며 커다란 위해가 저질러져 있었다.”

석방된지 몇 시간 뒤에 요셉 스미스는 다시 체포되어 콜스빌에서 재판을 받았다. 조셉 나이트 일세의 변호사 친구들은 요셉을 도와주는 일에 지쳤지만 그의 청을 들어 주었다. 라이드씨는 조셉 나이트 일세가 마치 “하나님의 계가 다윗 성으로 갈 때 그 뒤를 따라간 노족장들 같았다”고 했다.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서 선 뉴웰은 요셉 스미스가 그에게서 악마를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권세로 내어 쫓았다고 재판장에서 말했다. (관련 기사: “재판정에 나타난 요셉”, 39페이지 참조) 데이빗슨씨와 라이드씨는 요셉 스미스를 변호했으며 그는 다시 석방되었다.¹⁰

1830년 9월에 뉴웰 나이트와 그의 처남인 프리본 드밀은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개최된 두번째 연차 대회에 참석했다. 뉴웰은 제사에 성임되었으며 프리본은 침례를 받았다.

페이엣에서 뉴웰 나이트는 어떤 돌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하이람 페이지의 주장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젊은 예언자의 편에 선 친구가 되었다. 뉴웰은 하이람 페이지가 “이러한 계시가 적힌 한 뭉치의 종이를 갖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도되었다. 요셉 스미스는 당황하였으며 이 새로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나이트 가족

한 방을 쓰고 있는 두 친구는 거의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요셉은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를 받았다.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한 방을 쓰고 있는 두 친구는 거의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요셉은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를 받는 합당한 사람에 관해 말씀하는 계시(28편)를 받았다. 뉴웰은 “페이지 형제와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돌을 포기했으며...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고했다.

모임이 끝난 뒤 하이람 스미스는 콜스빌 지부를 관리하도록 지명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인 제루샤는 뉴웰과 셸리 나이트와 더불어 살았으며 좋은 친구가 되었다. 뉴웰은 후에 하이람의 뒤를 이어 지부장이 되었다.

이주에 따른 희생

1830년 12월에 교회 회원들은 “오하이오주에 다같이 모”이라는 명을 받았다. (교성 37 : 3) 뉴웰 나이트는 이것이 재산의 희생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뉴웰은 60에이커의 땅을 팔았으며, 프리본 데밀은 61에이커를, 아론 켈버는 100에이커를 조셉 나이트 일세는 140에이커와 “집 두 채에 창고 그리고 좋은 과수원을” 팔았다. 뉴웰의 인도 아래 62명의 나이트가의 친척들은 오하이오주에 최초로 이주한 집합인 중의 일부였다. 다른 교회 조직과는 달리 콜스빌

지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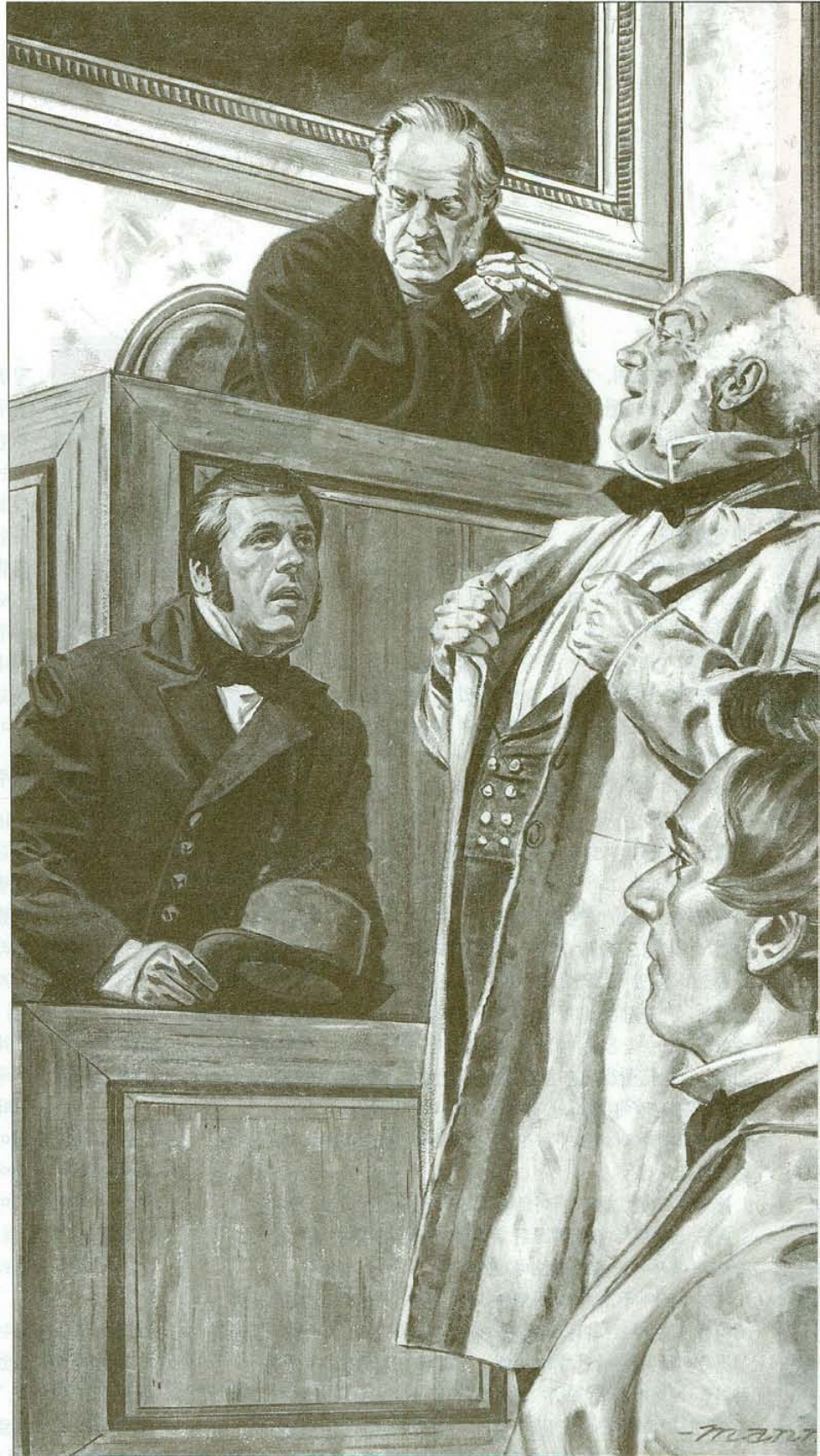
그 가족은 오하이오주 페인스빌 근처에 있는 리만 코플리 땅에 정착했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에서 경제 협력 체제 아래 살려 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다. (교성 48 : 51 참조) 그러나 리만 코플리는 곧 그의 땅을 환수했으며 성도들에게 떠나라고 명했다. 조셉 나이트 일세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지만 코플리는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며 우리가 전에 가졌던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뉴웰 나이트는 예언자에게 권고를 구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요셉 스미스는 나이트 가족이 다시 미주리주로 이주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

1832년 7월 25일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콜스빌 친구들이 미주리로 오는 것을 환영했으며 그들을 인디펜던스에서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정착하도록 인도했다. 조셉 나이트 일세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그곳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유쾌한 지역임을 알았으며 우리는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

윌리엄 지 하틀리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역사학 부교수로 있으며 교회사를 위한 조셉 필딩 스미스 연구소에서 역사가로 일하고 있다. 그는 샌디 유타 동 스테이크의 샌디 37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

1. 이 기사는 저자의 저서인 “그들은 나의 친구임” 조셉 나이트 가족의 역사, 1825~1850년(프로보, 유타: 그랜던 출판사, 1986년)에서 발췌 수정한 것이다. 지팡이 이야기는 3페이지에 있다.
2. 이 기사에 있는 조셉 나이트 이세의 모든 인용문은 그의 “역사적 사건”에 있는 것이다.
3. 이 기사에 있는 뉴웰 나이트의 모든 인용문은 교회 서고에 있는 출판되지 않은 그의 일지에 있는 것이다.
4. 이 기사에 있는 조셉 나이트 일세의 모든 인용문은 단 시 제시가 편집하여 출판한 “초기 Mormon 역사에 대한 조셉 나이트 회상”이란 역사에 있는 것이다. (브리감 영 대학교 연구서 17[1976년 가을]: 26~39)
5. 교회사 1: 47
6. 교성 12, 23, 37, 52, 54, 56, 58, 124 참조
7. 교회사 1: 82~83
8. 같은 책 1: 87~88
9. 같은 책 1: 88~91, 95
10. 같은 책 1: 91~96
11. 대회에 대한 다른 기록은 교회사 1: 109~20에도 있음.



법정에 선 요셉

요셉 스미스가 그에 대한 모든 고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웨닝고군 법정에서 방면되었을 때 근접해 있는 브룸군에서 와 있던 관리들은 또 다른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뉴웰 나이트는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요셉에게 이 두번째 영장을 발부한 보안관은 그를 체포하자 마자 그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법정에 있었지만 요셉은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대신 그는 9킬로미터 떨어진 주막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그를 모욕하고 놀리고 박해했다.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으며 손가락질하면서 ‘예언하라, 예언하라’고 말했다.”

나이트 가족과 그들이 고용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요셉은 콜스빌 법정에 나타났으며 그곳에서 그에 대한 고소가 있었으나 모순투성이었으므로 그 증언은 무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뉴웰 나이트가 증인으로 불리워 나가 검사인 세이몰씨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세이몰씨가 물었다. ‘피고인 요셉 스미스 이세가 당신에게서 악마를 내어 쫓았습니까?’ “대답: ‘아니오.’ “질문: ‘당신에게서 악마가 쫓겨 났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질문: ‘그 일에 요셉 스미스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서 악마를 쫓아 낸 것이군요.’ “대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나이트 가족

뉴웰 나이트가 증인으로 불리워 나가 검사인 세이몰씨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악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질문: ‘그것이 악마였음이 분명합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질문: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때 변호인 측의 변호사 한 사람이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고 세이몰씨가 그에 답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세이몰씨, 영의 일을 이해하십니까?’

“세이몰씨가 대답했다. ‘아니오.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군요. 그것은 영적인 모습이며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린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중으로부터의 큰 웃음거리가 그의 실패를 선언하듯이 들려오자 그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요셉의 변호인들은 법적인 분야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않았지만 고소인들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으며 모든 고소를 무효케 하고 요셉을 석방시켰다.*

(“뉴웰 나이트 일지”, 자서전. 열번째 신앙백서, 솔트레이크시티: 청소년 인스트럭터 사무실, 1883년)



Steve Bunderson

기억의 은사

라렌 건트

지 난 해 나는 수년간 하고 싶어했던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 그분들의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로 가득찬 책을 드린 것입니다. 이 편지들은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과 사랑과 존경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의 부모님은 그분들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고 영감과 모범의 대상으로 그분들을 바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존경을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에 대해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확신하는 듯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이 책을 편찬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 관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편지들은 오랜 친구로부터 듣는 유쾌한 이야기처럼 즐거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들은 나에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득품게 해 주는 경험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느 부부로부터 나의 부모가 그들에게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기쁨과 사랑을 전해 주는 기억의 책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1.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친구와 친척의 이름과 주소록을 작성하십시오. 처음에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행하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십시오.

존경하는, _____ 귀하

저는 금년(성탄절, 결혼 기념일, 생일 등)에 저의 부모님(성함을 적음)의 과거에 있었던 흥미있는 경험으로

가득찬 책을 만들어 부모님께 존경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는 편지, 이야기, 추억, 사진 등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관해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일들을 적어 주시어 이 일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음을 해 주시면 그것을 베끼고 전화를 해서 알려 주시면 그 내용을 적어 넣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는 저의 부모님의 친지분들의 성함과 주소를 알려 주시면 그분들께도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부모님께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 것인지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올림

이상과 같은 편지를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우송하십시오.

3. 회신을 받게 되면 목록에 있는 이름에 표시하십시오. 새로운 이름과 주소를 받게 되면 그들에게도 같은 편지를 보내십시오.

4. 회신되어 오는 편지를 그 책에 포함시키십시오. 앨범, 바인더, 기타 다른 종류의 노트 등 모두 좋습니다. 편지들은 내용의 첫부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둘 수 있습니다. 또는 편지들을 부모님의 생애의 각기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형제나 자매에게 줄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 의의

한글

죽음과 죽는 과정에 대하여

윌리엄 엠 티민스



우리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순수한 사랑과 자선의 행위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영이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몇년전 감독으로 봉사할 때 나는 선교사로 나가려는 젊은 형제와 집건을 했습니다. 그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리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지도자였으며 워드 청소년 지도자였고 큰 키에 운동을 좋아하고 어느 곳에서든 소녀들이 좋아할 만큼 잘 생겼었습니다. 나는 것처럼 훌륭하고 건전한 젊은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는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와 함께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워드와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으며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젊은이들이 이 젊은이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울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위해 나의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예배당, 활동실, 복도까지 만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시간에 그 젊은이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 보는 시간에 청소년들은 소리내어 울었으며 슬픔을 폭발시키고 비극과 상실감을 맛보았으며 그들의 신앙은 회복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그후 몇년 동안 그들은 그 모임이 자신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계획이 없었던 어떤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나갔으며 어떤 젊은이들은 성전 결혼을 할 목표를 세웠으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에 더욱 합당하도록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일을 처리할 때 그 장례식은 그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하는 형태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는 우리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죽어가는 모습을 잘못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순간 나는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암과 신장 문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가끔 잘못된 이야기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책들이 이 주제에 관해 다루고 있으나 하나님과 생명에 관해 제한된 견해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의 저서인 *비극인가?*

운명인가?(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7년)에서 훌륭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블 대관장님도 어떤 죽음은 이해할 수 없음을 시인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또는 그의 가족에게 임박한 죽음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워드 회원은 나와 내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벌을 주시게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가족에게 크게 고통을 주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암이 나를 죽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의견은 똑같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진실로 신앙이 있다면... 좋은 의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강한 간증과 큰 신앙을 갖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많은 병자 축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적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답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더욱 필요로 하십니다. 많은 친구들이 내가 장막 저편에서 큰 임무를 맡는 데 필요하다는 견해를 노골적으로 전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죽을 때 나를 위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겠지만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지 못합니다.

아릅니까?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 있어 이러한 질문은 아내나 감독 및 의사 이외의 사람들과는 토론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질문들입니다.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슬프고 낙심케 합니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와 아내에게, 특히 십대의 두 딸에게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느냐고 물을 때 항상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과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나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일도 계속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 말은 나도 여러번 했었지만 말 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뒷뜰의 울타리 일부가 폭풍으로 쓰러졌을 때 나의 이웃이 했던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는 무언가 도와줄 것이 있는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찾아와서는 썩은 기둥을 갈아치우고 울타리를 고쳤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집수리하는 일을 도와주거나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세탁 및 다림질 또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저 앉아서 슬픔에 젖은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순수한 보살핌은 아마 빵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좋은 의도를 가진 많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 음악을 듣거나 기적으로 병을 고친 책을 읽거나 채식 또는 다이어트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의사가 금하는 것이었고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과 죽는 일을 피하고자 합니다. 많은 좋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하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만이 생활 가운데서 유쾌하지 못한 일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짧은 메모나 편지도 방관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가족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친구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 제안들을 생각해 봅시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바로 이 시기에 나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추억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서서 나는 회상과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모든 추억 속으로 나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을 회상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및 가족 역사는 추억을 더듬을 때 훌륭한 방법으로 과거를 새롭게 해 줍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바로 이 시기에 나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추억입니다. 좋은 경험을 회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녹음한 것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까?
나의 이웃이 무너진 울타리를 보고 고쳤을 때 그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필요 사항은 물어 보지 않고는 쉽게 알아낼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보거나 제안하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가족의 재정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걱정이었으나 그것을 알아낼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공인 회계사인 감독이 나를 찾아 왔습니다. “형제님께서 원하신다면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과 함께 형제님 닥의 재정 상황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크게 감사하게 여겼으며 그가 집안 재정을 살펴본 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음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시작도 안했거나 완성하지 못한 개인 역사를 정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녹음 테이프 편집, 사진에 설명을 기입하는 일, 자료 정리 등,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차에 오일을 넣어 드릴까요?” “가게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정원에 있는 채소 거두는 일을 도와 드리겠습니다.”하는 것 등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묻거나 부탁하는 일을 거절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해 드릴까요? 나는 자신이 가족에게 더 이상 축복을 줄 수 없게 될 때 누군가 나의 아내와 자녀에게 “축복을 해 드릴까요?”하고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병든 이래로 여러 차례 훌륭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은 다른 가족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우리 와드의 젊은이가 사고로 죽었을 때 나는 그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의 아버지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형제님께 축복을 해드리지 않았지요? 축복해 드릴까요?” “네”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축복을 받고 싶으냐고 묻지 않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가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불편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인내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제 뵈지 못하게 되어 섭섭하군요.”라는 말은 내게 좋은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노력은 감사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내가 형제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가족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내 모습이 변한 것이 형제님을 당황하게 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님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거든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형제님과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안부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내가 형제님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 주십시오.

나에 대한 추억을 간직해 주십시오. 지금은 나의 가족과 이별을 할 시간이며 슬픔을 겪을 시간입니다. 나의 가족이 슬퍼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거든 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울고 싶어 하거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슬픔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며 죽음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순수한 사랑과 자신의 행위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영이 인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불필요한 상처와 고통이 없어도 충분히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타주 프로보 소재 브리감 영 대학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학과의 교수였던 윌리엄 엠 타민스는 이번 호 성도의 빛의 발행을 앞두고 1989년 2월 26일 사망했다. 그의 가족으로는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한 가지 이상의 선수

제이슨 존 부쉬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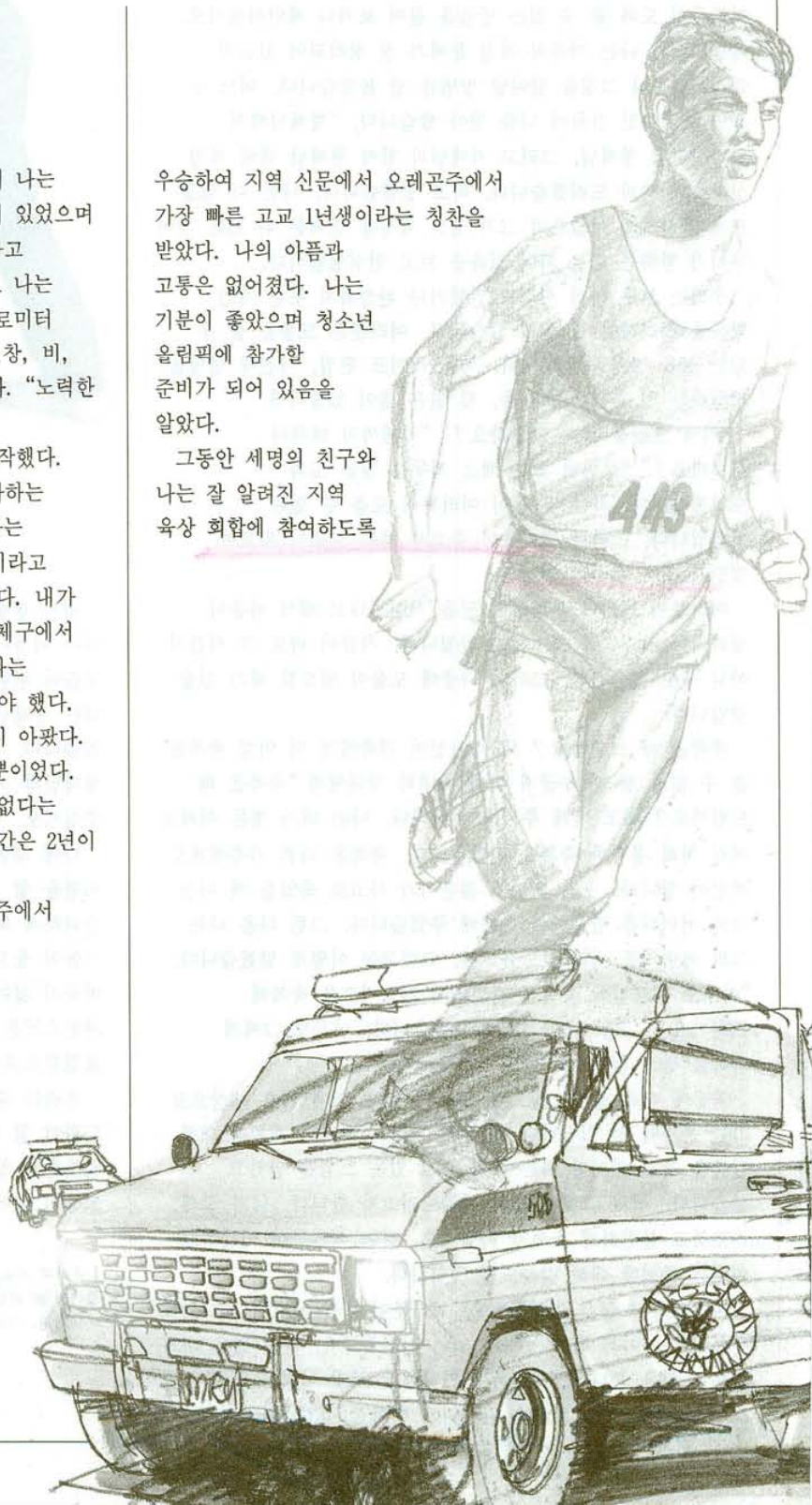
소년 시절 나는 뛰는 것을 좋아했다. 열한 살 때 나는 오레곤주 크로스 컨트리 경주에서 우승한 일이 있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국가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로 나는 규칙적인 훈련을 수년 동안 계속했다. 매일 나는 5킬로미터 내지 16킬로미터를 뛰었다. 나는 훈련을 좋아했다. 진창, 비, 땀, 고통 등 어떤 것도 나의 목표를 가로 막지 못했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것이 나의 모토가 되었다.

나는 청소년 올림픽에서 있을 경기를 내다 보기 시작했다. 나의 계획은 열네 살이 되는 해인 1985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으며 다시 열여섯이 되는 1987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때가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으며 신체적인 상태도 최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은 1985년이 되면 날씬하고 가벼운 체구에서 키가 크고 체중이 무거운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나의 모든 연습은 성장하는 신체에 맞추어야 했다. 무릎이 계속 아팠다. 달릴 때면 다리와 엉덩이가 몹시 아팠다. 나는 겨우 주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1985년에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1987년 경기를 위해 자신을 준비할 시간은 2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1987년 봄까지 나는 잘 뛰었다. 나는 1,500미터 경주에서

우승하여 지역 신문에서 오레곤주에서 가장 빠른 고교 1년생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나의 아픔과 고통은 없어졌다. 나는 기분이 좋았으며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동안 세명의 친구와 나는 잘 알려진 지역 육상 회합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 자신감과 사기에 가득 찬 우리는 코우치와 함께 선수차에 올라 탔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차량이 밀리는 것을 알고 나도 모르게 안전 벨트를 조였다. 우리는 모두 웃고 농담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연히 한 대의 차가 속력을 내며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그 차는 우리의 차선에서 들락거리며 우리 차 몇 대 앞까지 와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놀라서 그 차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지켜 볼 뿐이었다.

나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무전기 소리, 그리고 경찰관의 외치는 소리에 깨어났다. 우리는 흠뻑 차량으로 속도를 내며 경찰에 쫓기는 수배범이 운전하던 차와 충돌했던 것이다.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레니는 내 뒤에 앉아 있었는데 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 순간 나에게로 밀려와 넘어졌다. 나는 앞으로 밀려나면서 의식을 잃은 그의 몸의 무게와 의자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나는 겨우 움직여 창밖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차는 구겨진 종이처럼 되어 있었다. 두 대의 구급차가 찌그러진 우리 차 옆으로 왔다. 나는 재빨리 그러나 조심스럽게 부서진 차 밖으로 나왔다. “이 학생은 등이 부러진 것 같은데.” 나는 한 구급요원이 동정과 염려에 찬 눈으로 나를 보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기적과도 같이 부러진 것은 등이 아니라 코였다. 그러나 등의 근육이 충격을 받고 관절이 이탈되어 여러 날 동안 걸을 수가 없었으며 여러 달 동안 정상적으로 뛸 수도 없었다. 이 사고는 나의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었다. 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하려던 계획이 다시 한번 좌절되어 크게 실망하였다.

나는 고등학교 팀과 나의 형제 자매와 내가 속한 육상 클럽에서 연습을 계속했다. 열살된 동생 타일러가 뛰는 것을 볼 때 나는 좌절과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힘차게 잘 달렸다. 그는 고등학교 선수들 만큼 빠르게 달렸으며 매주 나아졌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만큼 모든 것이 그리 쉽게 그를 위한 것처럼 보일 때 분하기까지 했다.

나는 타일러가 2위와 500미터의 차이로 주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았다. 흥분한 관중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들었다. 나는 뒤에서 있었다. 믿기 어려운 자존심이 나의 내부에 생겨 났다. 타일러가 모든 관중들을 쳐다볼 때 우리 사이의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란스러운 경기장에 나와 동생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의 성공에 대한 분개심은 완전히 나에게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동생이 전국 대회에 나가도록 내가 아는 모든 지식으로 준비시키고 도와 주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그후에 함께 뛰었다. 나는 자세와 전략, 다른 주자들 앞서는 방법 또는 선두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언덕을 뛰면서 그의 지구력을 길렀고 트랙에서 속력을 내는 연습을 하고 그의 반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온갖 연습을 다했다. 우리는 집에서 잔일을 하거나 아침을 먹을 때 또는 차를 타고 가거나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도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쏟아지는 빗속이나 찌는듯한 더위에서도 뛰었다.

타일러와 나는 우선 북서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연령 그룹에 출전했다. 그 경기는 우리에게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사고와 훈련 부족으로 나는 25위 안에 들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첫 경기에서 뛰었으며 300명 가운데서 21위를 하여 전국 순위에 들었다.

나는 나의 기량에 만족한 뒤 타일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미 그를 크로스 컨트리 코스로 데리고 다니면서 접근 및 진창 통과 방법, 최대한 힘을 내야 할 때, 힘을 저축해야 할 장소,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균세게 지탱하는 방법 등에 관해 알려 주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265명과 함께 출발선에 서 있는 그를 보면서 나는 내가 경기를 할 때 출발선에 서 있을 때처럼 긴장했다. 타일러는 긴장해 있었으며 나는 그가 가장 잘 뛰리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가 느끼는 불안감을 내가 겪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다. “타일러, 잘 뛰어! 잘 기억해라. 너보다 잘 뛰는 아이는 없어!”하고 내가 말했다. 나는 팔을 그의 어깨 위에서 내리고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의 응원이 그에게 들리기를 바라며 코스의 이곳 저곳을 뛰어 다니며 격려할 때 그가 잘 뛰고 있음을 보았다. 나의 응원 소리가 들릴까? 내가 전하는 지지의 힘을 그가 느낄 수 있을까? 그는 두번째 장소에서 마지막 힘을 내는 지점에

왔다. “계속 뛰어, 타일러.” 하고 나는 외쳤다. “팔을 사용해, 숨을 깊이 쉬어!” 나는 5,000여 군중이 지르는 함성 가운데 내가 그에 대해 느끼는 것을 그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마지막 100미터를 위해 코너를 돌고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이 순간이 오기를 바라며 뛰고 또 뛰던 지점이었다. “자, 타일러, 힘내. 마지막이야. 남은 힘을 다 내!” 하고 내가 소리쳤다. 나의 목소리는 어린 동생이 완전한 건강 상태로 내가 꿈꾸어 오던 전국 챔피언이 되기 위해 결승 지점을 향해 달리는 모습에 감격하여 막히고 말았다.

그에게 갖고 있는 나의 공지는 나도 무엇인가를 쟁취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나는 타일러가 우승하도록 내 자신의 일부를 그에게 주었으며 그것이 나의 내부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강한 느낌을 갖게 했다. 지친 타일러가 군중을 헤치고 나에게 다가 왔을 때 그는 내 생애에 가장 큰 교훈을 준 몇 마디 말을 던졌다.

“형, 정말 힘들었어. 그렇지만 사람들의 함성 가운데서 형의 응원 소리가 들렸어. 나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겨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

이 어린 선수는 나에게서 어떤 교훈을 배웠을까?

가족에서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군중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 타일러가 우승하라는 소리를 듣고 뛰었다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그러한 음성을 필요로 하겠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계획이 좌절되어 다른 사람이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가?

타일러와 내가 포옹을 하였을 때 나는 다음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요한일서 2:20)*



그는 마지막 100미터를 위해 코너를 돌고 있었다. “자, 타일러, 힘내. 마지막이야. 남은 힘을 다 내!”



“너는 저보다 크뇨?”

제니퍼 클락

나는 세미나리 반에 앉아서 선생님이 요셉 스미스와 초기 성도들이 겪은 시련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반쯤만 듣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었고 훌륭한 교사가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날 그곳에 있는 것이 재미 있지 않았다. 나는 낙심하였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할 말을 하는 앤더슨 형제님에게 미소도 보내지 않은 채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그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게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대체 문제가 없으라는 법이 있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모든 생활이 싫증났다. 학교, 선생님, 재미있는 일은 할 것이 없는 조그만 읍에서 살고 있는 것 등 다 싫증났다.

나는 절망의 가운데서, 반에서 들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 것 같았다. 앤더슨 형제님은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 몇명이 범하지도 않은 죄로 인해 다시 감금되었던 때에 관해 말씀하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요셉은 그들이 것처럼 충실했는데도 왜 고통을 받도록 놔두시는지 간청하며 주님께

구해주시기를 탄원했다. 그리고 앤더슨 형제님은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답하신 교리와 성약 122편 7~8절을 읽어주셨다.

“너를 함정에 던져 살인자의 손에 넘기고 사형을 선고할지라도, 저들이 너를 깊은 바다에 던질지라도, 몰아치는 파도가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열풍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풍우화석이 모두 힘을 모아 길을 가로 막으며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네게 크게 입을 벌려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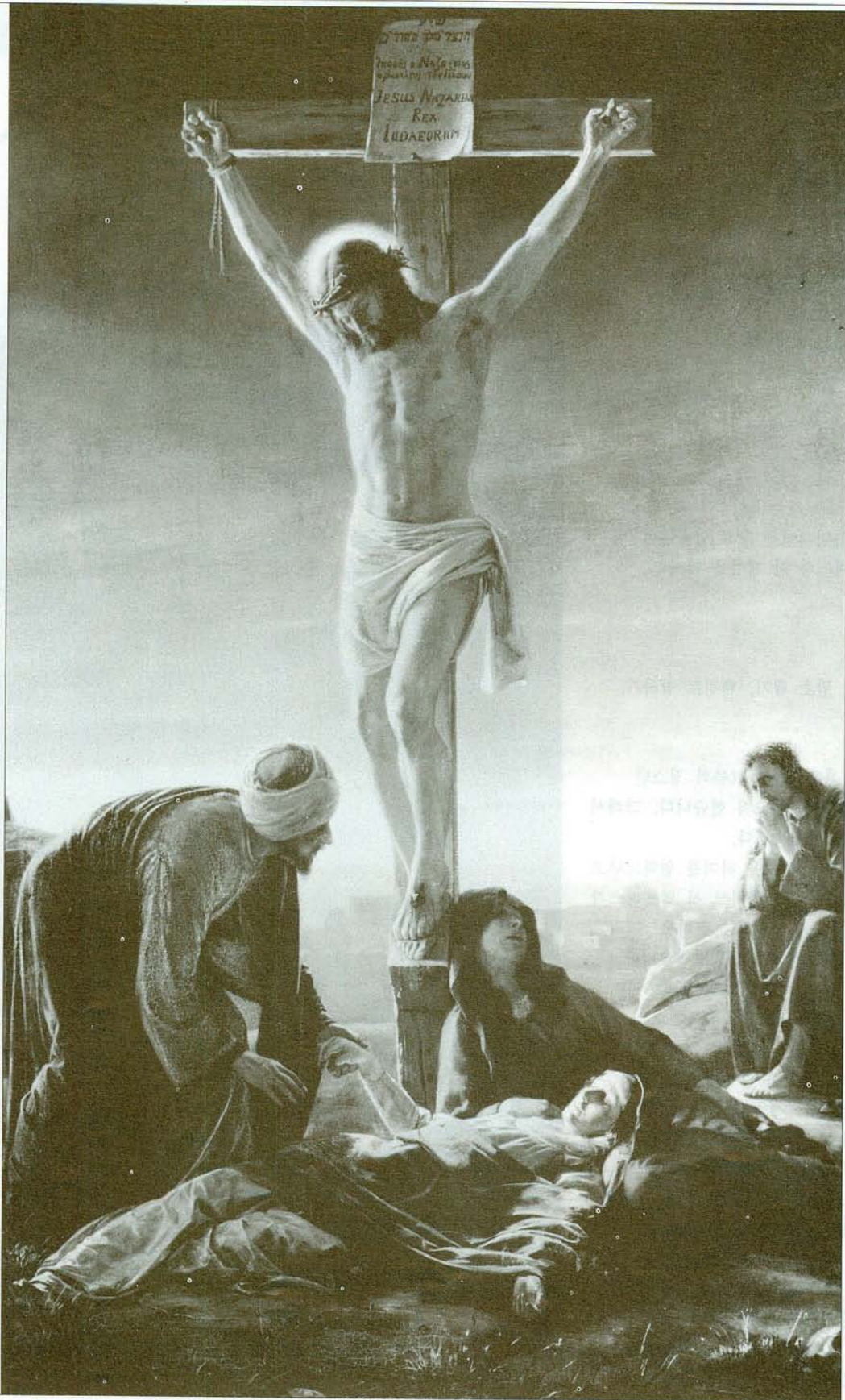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

그는 마지막 문장을 강조했으며,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생각할 때 실내는 완전히 고요했다.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 같이 느꼈다.

“야아!” 나는 중얼거렸다.

앤더슨 형제님이 나를 보며 미소지었다. 내가 누구에게 불평했는가? 내가 무슨 권리로 주님께 내 생활이 불공평하다고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



말했는가? 내가 어떻게
그토록 고마움을 모를 수
있었는가?

나는 그 날 내가 느꼈던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
경전 구절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머무는 듯 했다.
나는 “왜 집니까, 주님?”하고
묻고 싶어 하자마자 조용하고
천천히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라고 말하는
앤더슨 형제님의 굵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에 대해 항상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나의
태도는 많이 변했다. 나의
인생관은 바뀌었고, 나는 이제
시련을 소망을 품고 참을 수
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니파이일서 3:7) 나
또한 이 말이 사실임을 안다.
나는 아마도 내 인생의 시련을
만도 못경험했겠지만, 나를
그처럼 효과적으로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해 준 그 날의
세미나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즐거움

리차드 엠 롬니

청 소년 대회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까?
콜로라도의 오로라 스테이크가 한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

열심인 봉사

자갈을 삽으로 푸기, 땅 파기, 잡초 뽑기, 페인트 칠하기,
청소하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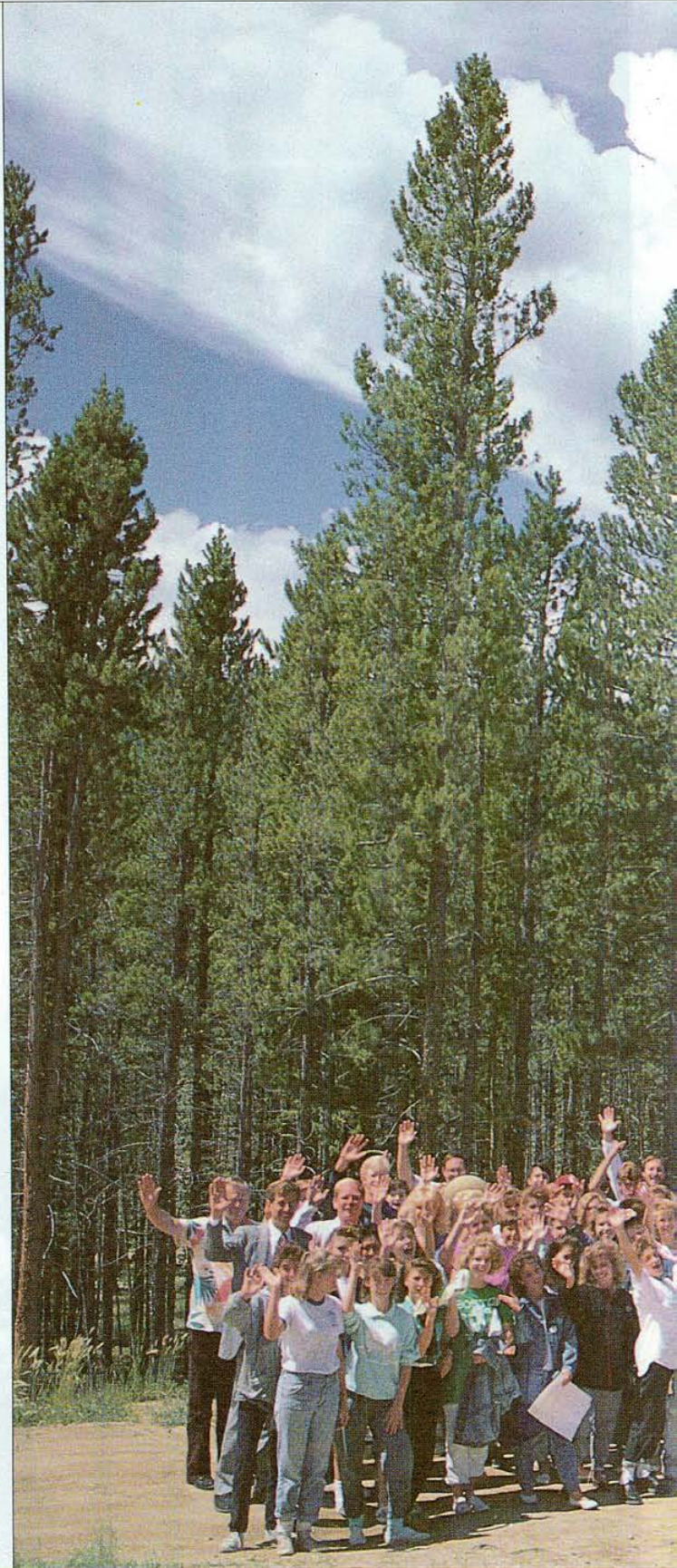
즐거움과 우정이 어우러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로라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청소년
대회를 위해 좀 색다르고 특이한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도시를 청소하며 3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청소년 위원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리차드 시 험프리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성도의 빛에 나온 봉사에 관한 이야기(“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집짓기”, 1988년 2월호, 47페이지)에 감명을 받아
청소년 위원회는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가지 이유로 그랜비를 택했습니다.
그곳은 오로라에 가까웠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못했으며,
시장과 시 의회 및 상업 회의소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 진정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차적인 혜택도 있었습니다. 전체 활동 가족이 다섯인
그랜비에 있는 조그만 말일성도 지부에는 다른 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우정을 증진하는 것을 환영할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에서 온 젊은이들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랜비 교회를 도와서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버스는 어느 목요일 아침 7시에 오로라를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8팀으로 나뉘어진 84명의 젊은이들은 그랜비 사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띄었습니다. 그리고 말일성도 청소년들의 무료 세차를 광고하는 지방 방송국 또한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음료수를 사러 어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앤디 클랩튼이 말했습니다. 그는 18살이며 기차 역에서 아침 내내 자갈을 푸고 있었습니다. “관매원이 말하길, ‘당신들은 물론인가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15살인 샌드라 힐본은 한길에서 꽃 화단을 청소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갖는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웃을 돕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난 처음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봤을 때 누군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곧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4살된 리자 스몰레이크 보도의 풀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15살인 엔젤리카 벨레즈는 앞이마를 닦으며 미소했습니다. “처음에 공동묘지에 갔을 때 비석 조차 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잔디깎기와 풀베는 낫을 가져와 벌초를 하고 많은 잔가지와 나무를 치웠어요. 이제 우리가 한 일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멋져요.”

14살인 지니 스탠포드는 아침 내내 손에 풀물이 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일입니다. 지저분한 일이지만, 하지만 일을 마치면 행복함을 느껴요.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지저분한 일이에요. 하지만 일을 마치면 행복함을 느껴요.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한다는 것은 참 멋져요.” 15살인 제이콥 카터가 말했다.

그랜비 큰길을 청소하고, 차를 닦고, 공동 묘지를 정돈하며, 역전에 자갈을 깔고, 고속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중심가 네거리의 잡초를 뽑는 일 외에도, 청소년들은 도시의 유서 깊은 통나무 교회를 페인트 칠하고, 정원을 가꾸고, 벤치와 오르간 내부를 닦았습니다.

“난 그것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말일성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모두가 형제 자매이며 서로 도움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17살된 대폰 모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청소년들이 그 예배당에서 말하던 것과 흡사했습니다.

“두대의 만원 버스가 올라오는 것은 좀 놀라웠습니다.”하고 13살인 그랜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명의 60대 회원중 한 명인 코리 트라이일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14살인 마크 빅모어가 말했습니다.

곧 16살이 될 그랜비의 레이 비티가 그날 아침에 방금 만난 오로라 청소년들과 나란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외롭게 지내요. 그리고 가끔 혼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처럼 함께 일하면서 나는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어떤 우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랜비에서 유일한 활동 청년인 13살난 빅키 아담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익숙치 않아요. 그것은 마치 사방에 온통 다른 물몬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도와줘요.”

그랜비의 청소년들과 오로라에서 온 청소년들은 대회에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봉사 활동만이 아니라 다른 활동 또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배구를 했습니다. 축구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큰 공을 가지고 미식 축구도 했습니다.

활동에는 플로어 쇼와 함께 하는 하와이식 루아우, 수영 파티 및 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된 활동은 이상과 우정 증진을 함께 나누는 대화 활동이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여기서도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말은 지부에 네 명의 청소년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같은 복음을 가졌고, 그들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7살인 프레드 랜퀴리가 말했습니다.

3일동안 그랜비의 청소년들과 오로라의 청소년들은 공동의 목적-선교 사업, 물몬경을 읽고 나누기, 도덕 및 표준, 의심이 세상에 가득할 때 신앙을 유지하기-을 토론하는 것이 차츰 편해졌습니다. 이 유대는 야간 기도 모임에서 또한 강화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지금 하는 작은 결정이 후에 큰



결과를 가져온다,” “행복하게 되는 법에 대한 복음의 제안,” 및 “가장 중요한 재산은 간증이다,”와 같은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대회 마지막 모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그랜비 시장이신 제리 로버츠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지금은 기차 역에 걸려 있는 테를 두른 역사적인 그랜비의 사진을 그가 읽기를 그들이 희망하는 물론경과 함께 선물했습니다. 그가 시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하는 것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과 지도자들은 서로 마음 속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 두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그를 도왔던 나머지 그룹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생활에 어떤 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사인 다른 젊은이가 그는 교회에서 일년동안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내가 청소년 대회에 참석한 첫번째입니다. 하지만 난 이미 여기에서 영을 느끼고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16살된 홀리 매티슨과 같은 청소년들은 말일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숫적으로 압도당하는 고등학교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영적인 모임에서의 말씀이 그녀에게 구세주께서 그녀를 사랑하시며, 그녀를 자세히 아시고, 그녀가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3일간 봉사에 대한 평가 또한 했습니다.

17살인 달라 에반스는 청소년 대회에서 단지 즐기는 활동 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대회에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활동을 해요. 하지만 이번 활동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랜비 지부장이신 개리 엠 쿠퍼 형제님이 말씀했습니다.

“지부는 15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 사회에서 빛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일을 했고 이 지역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범에 의해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봉사가 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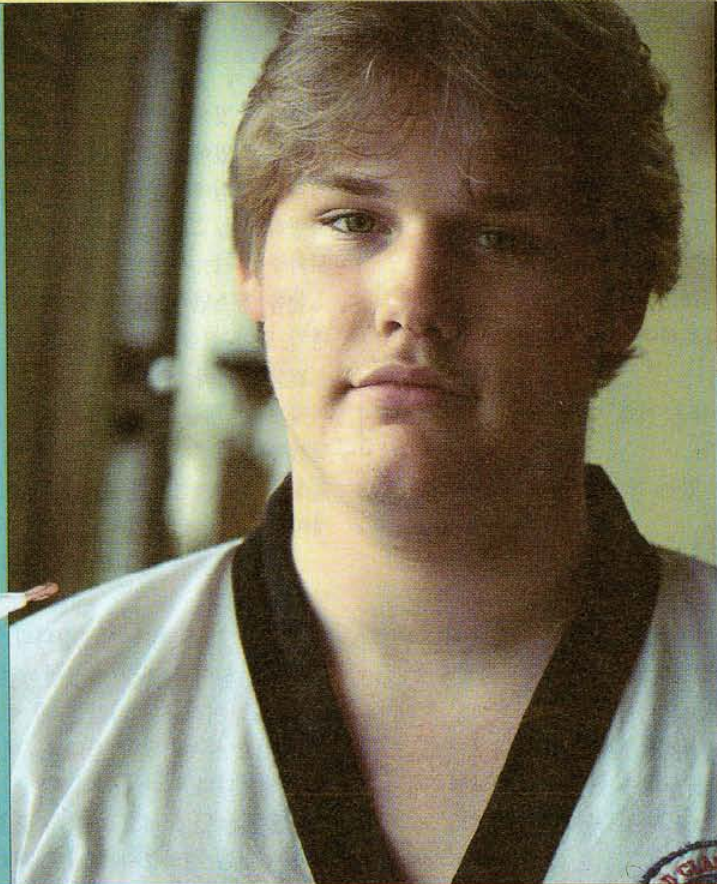


높이 차는 가족

레이드 로버츠



태권도에서는 인격 수양이 신체 단련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존경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태권도의 규율입니다." 하고 세인이 말한다.



“나”는 감사함이 뭔가 큰 실수쯤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문에 대해 배운 것은 모두 타당했습니다.



세인 알두스는 태권도장으로 들어섰다. “태극 7장”하고 고품을 지르며 그는 카타라고 부르는 복잡한 일련의 동작을 유연하게 해내며 학생들을 인도하기 시작한다. 세인의 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손가락을 모으고 위치를 움직인다. 그의 눈은 크게 떠져 있고 그는 낮은 자세로 발을 움직인다. 그런 다음 정확한 동작으로, 손으로 원을 그리고, 정지하고, 안으로 끌어당기고, 위로 쳐올린다. 그리고 재빠르게 높이 걷어 찬다.

태권도장은 선교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15세인 세인 알두스와 그의 가족에게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년 전에 나는 반에서 제일 큰 아이였습니다.”하고 세인이 설명한다. “반에서 힘겨나 쓴다는 아이는 모두 나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신문에 태권도 광고를 보고 나에게 배우고 싶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사범인 김철호는 태권도가 신체 및 정신 수양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태권도에서는 인격 수양이 신체 단련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존경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태권도의 규율입니다.”하고 세인이 말한다.

세인의 부모와 14살 된 그의 동생 브래드는 사범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브래드도 배우도록 등록을 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이 함께 합니다.”하고 세인이 말했다.

알두스 가족은 함께 일하고 서로 배우도록 돕기 때문에 빠르게 배워나갔다.

브래드와 세인은 태권도 시합에 출전하기 시작하여 미합중국 청소년 올림픽에서 해당 체급 부문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였다. 세인은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브래드는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알두스가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운 후로 김사범은 그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뛰어난 어떤 면을 갖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도와 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개인의 성장 및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알두스 가족은 김사범을 교회로 초대했다. 그는 선교사와 공부를 시작했으며 침례를 받았다.

그가 침례받은지 얼마 안되어 열 아홉 살된 학생 글로리아 리도 침례를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김사범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몬들에 대해 나쁜 것들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내가 생각하는 그릇된 종교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을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범님과 다른 교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종교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으나 내가 물몬에 대해 배운 것은 모두 타당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김사범님을 ‘그릇된 종교’에서 구해내는 대신 나 자신이 침례받는 일로 그 일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나의 가족은 다른 교회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내가 김사범님을 염려했듯이 나에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침례받은 것을 결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교리는 참됩니다. 알두스 가족은 나에게 늘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교회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인의 말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노력하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그것을 아는 것은 성공적인 선교 사업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지켜 보는지 모릅니다. 또는 언제 관심을 갖게 되고 질문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